

定慧社

불기 2551년 겨울 | 제36호



저 허공이 부서져서 흰 티끌 되고 산과 들은 높낮이가 없어지며 사람은 보이질 않네
마른 나무 등결에 흰 송이 꽃 피어나 공겁 이전의 봄을 부르고 있구나.

- 大智禪師

송광사 전통강원

濟 제도

부처님께서서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처럼 중생 또한 제도할 수 없는 중생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첫째가 원을 세우지 않은 중생이고, 둘째가 인연이 없는 중생이다. 이 때문에 삼계의 도사이고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조차 제도할 수 있는 중생보다 제도할 수 없는 중생이 훨씬 더 많았다. 무엇이든 일방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그러나 반대로 원을 세우고 인연을 만들면 누구나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해탈을 이룰 수 있음도 알 수 있다. 원을 세우게 하고 인연을 만들도록 돕는다면 이보다 큰 제도도 없을 것이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출가 승려에게는 분신과도 같은 말이다. 하지만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인도하면 자신의 선량한 뜻과는 관계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서 해매게 하겠는가? 중생을 위해서라도 우선 자신부터 고통에서 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이 고통을 여의고 안락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판이하게 달라져 있다. 그것은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는 새들과 꽃과 짐승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까지도 느낄 수가 있다. 생명 있는 것은 모두 그 앞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자신을 추스르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을 한량없는 복전이라 한다.

그러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애쓰다고 다른 이들의 삶에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남을 도울 때 가장 큰 장애가 바로 '나'다. 봉사한다는 상에 취하기도 하고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 때문에 남의 생각이나 말, 행동이 자기에게로 흐르지 못하고 차단되기도 한다. 진정으로 남이 잘되기를 바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한다면 나란 것만 가득 차 있던 마음에 점점 나와 함께 다른 많은 사람들로 내가 채워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나란 것은 있지만 나란 것에 더 이상 탐착하지 않는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 직시直視하는 눈을 열어 주는 것이다. 나란 것에 더 이상 탐착하지 않을 때 어떤 것이 우리를 휘두를 수 있을까? 수행은 본모습을 사랑함이요, 헌신은 본모습에 이르는 수행이다. 깨달았다고 하는 이가 자비심이 없다면 그는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이요, 자비롭다고 하는 자가 인아人我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 자비롭지 못한 것이다.

부처님은 처음 성도하시고 중생들에게 법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었다. 누구나 고통을 싫어하나 아무도 거기서 나오려 하지 않는다. 고통 속에서 맛보는 잠깐의 달콤함을 잊을 수 없으며 그 맛이 항상 아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통에서 탈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즐거움을 포기하거나 즐거움을 반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 즐거움은 '내'가 누리는 것이라 '내'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과도 같다. '내'는 실체가 없으며 열어질수록 안락하다는 말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흔히 제도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만 부처님도 처음에는 내키지 않은 일이었다. 온 정신을 거기에 쏟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법을 원하고 받아들일 인연을 지은 사람들이 먼저일 것이다. 자신의 안락이 먼저 있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定慧社

불기 2551년 겨울호 | 통권 제36호

- 2 사진 속 이야기
- 4 방장스님 법어
정해년 동안거 결제 법어 | 범일 보성
- 6 기획연재1
송광사강원松廣寺講院 역경譯經 | 편집부
- 12 특별기고
경옥근 거사님 극락왕생기 | 서현
- 18 지대방 이야기
도반 | 승찬
떡국 먹는 날 | 고담
머리 큰 스님? 발 큰 스님? | 혜원
숨어 있던 관세음보살 | 학연
- 26 정혜탐방
서울 금강선원 선원장禪院長 혜거慧炬 스님
- 33 경전 한 구절
덧없는 생각
- 34 목우만평
인생법문 - 추담스님 | 종안
대신심大信心 | 견해
- 36 목우단상
사물四物 | 범보
출가出家 | 시견
- 38 바람을 메고
세계불교 중심지 대만을 다녀와서 | 편집부
- 46 바람소리 한 자락
아름다운 도반 수석정 | 혜철
삭발하는 날 | 범해
- 51 시가 있는 풍경
스님 뵈던 날 | 서공
靑山 | 상국
- 54 학인기고
중국 수隨나라의 불교 | 연관
- 59 화보와 소식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 62 대외활동 후원안내
- 64 강원 후원내역·편집후기



虛空粉碎化微塵
大地平沈不見人
枯木乍開花一點
喚回空劫已前春
- 大智禪師

발행처 | 송광사 강원

발행인 | 일귀(강주)

편집인 | 태원(입승)

편집장 | 지륜

편 집 | 시현·설산·혜원

사 진 | 시현

발행일 | 불기 2552년(서기 2008) 2월 11일

주 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전 화 | 061) 755-5302

인 쇄 | 부다기획 062) 225-8825



心常了了口常默
且作伴痴方始得
師岱藏錐不露尖
是名好手真消息

- 無衣子 -

속성 최崔, 자 영을永乙, 호 무의자無衣子, 법호 혜심慧諶, 시호 진각국사眞覺國師,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조계산曹溪山 수선사修禪社의 지눌知訥스님에게 나아가, 재齋를 올려 어머니의 명복을 빈 다음 지눌스님 문하로 출가. 지눌스님 입적 후 왕의 부탁으로 조계종의 2세가 됨. 최우崔瑀를 비롯한 무인정권과 친분.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심요心要』·『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



마음은 항상 분명하고 입은 항상 침묵하며
장차 어리석음을 짝해야 비로소 얻게 되리라.
송곳 끝 날카롭되 튀어나오지 않게 하면
한 소식 전하는 진정한 수행자니라.

- 편집실 -

『구자무불성화간병법拘子無佛性話揀病法』·『무의자시집無衣子詩集』·『금강경찬金剛經贊』·『선문강요禪門綱要』 등을 저술. 나이 56세, 법랍 32세인 1234년 6월 26일 마곡麻谷에게 “이 늙은이가 오늘은 너무 바쁘다.”는 말을 남기고 가부좌 자세로 입적. 부도는 광원암廣遠庵 북쪽, 진각국사 비는 강진군 월남산 월남사月南寺에 각각 설립.

방장스님 법어

정해년丁亥年 동안거 결제 범문法門

범일 보성 | 조계총림 방장



先有此庵하고 方有世界하니 이 암자가 생긴 뒤에 세계가 생겼으니
世界壞時에 此庵不壞라 세계가 무너져도 이 암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庵中主人이 無在不在하니 이 암자 주인은 있고 없는데 있지 않으니
有照長空에 風生萬籟로다. 달은 온 하늘을 비추고 바람은 만 가지 소리를 내는구나.

우리가 오늘 결제結制하는 도량道場은 송광사松廣寺 삼일암三日庵입니다.
옛날부터 대상埜上은 삼일암三日庵이라 하여 공부인工夫人이
정진精進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결제結制한 대중大衆은 이 암자주인庵子主人을 보았습니까.
방장方丈도 주지住持도 대중大衆도 다 주인主人은 아닙니다.
석옥화상石屋和尚께서는 월조장공月照長空에 풍생만뢰風生萬籟라 하셨지만
나는 江上晚來雨適靑(날 저문 강물 위에 빗방울이 푸르다)이라 할 것입니다.

요즘 내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 중은 시간이 많고 일본 중은 돈이 많다고.
또 한국 중과 한국 여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이라 한다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소리입니까.
한국 중은 공부도 안하고 일도 안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송광사 대중은 최소한 이런 중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인의 말씀에 공부와 일은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국 백장스님은 하루를 놀면 하루를 굶는다고 하셨고,
용성스님과 학명스님은 선농을 병행하셨습니다.
우리 송광사 대중은 시물을 수용하고 살면서 한가하게 놀다가
죽어서 소가 되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定慧社

서장書狀 - 李 叅 政

시현是玄 | 편집위원

지금 우리 한국에는 수많은 불교서적이 있다. 그 가운데 번역본이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같은 경전을 놓고서도 역자에 따라, 시대에 따라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부분이 적지 않아 접하는 이들은 많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지금 여기에 실린 번역이 그런 것을 다 회통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다만 2007년도 동안거 송광사 사집반에서는 선어록 가운데 하나인 서장을 이러한 관점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바 본지에서는 송광사 강원의 강의내용을 열어 보이는 것이다.

李 叅 政 漢老의 問書

邴이 近扣籌室¹⁾하사와 伏蒙激發蒙²⁾滯하야 忽有省入호이다 顧惟호니 根識³⁾이 暗鈍하야 平生學解가 盡落情見⁴⁾이라 一取一捨호미 如衣壤絮하고 行草棘中하야 適自纏繞러니 今一笑에 頓釋호니 欣幸을 可量이릿가 非大宗匠의 委曲垂慈시면 何以致此리닛고 自到城中으로 着衣喫飯하며 抱子弄孫하야 色色仍舊호대 既亡拘滯之情하고 亦不作奇特之想하며 其餘宿習舊障도 亦稍輕微하고 臨別可嚙之語는 不敢忘也니다 重念호니 始得入門이나 而大法을 未明하야 應機接物에 觸事未能無碍호니 更望有以提誨하사 使卒有所至시면 庶無玷於法席矣일까아노이다

제가 근래에 주실籌室을 방문하였을 때 어리석고 막힘을 격발激發해 주심에 힘입어 홀연히 깨달아 들어감이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근식根識이 어둡고 둔하여 평생 배워서 안 것이 다 샅된 견해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버림이 떨어진 솜옷을 입고 가시밭 가운데를 지나다가 마침내 스스

1) 주실(籌室) : 인도의 사조(四祖)인 우파국다존자가 20세에 깨달은 후, 한 사람을 제도할 때마다 산가지를 하나씩 석실(石室)에 두었는데, 존자가 입멸할 무렵에는 산가지가 석실을 가득 메웠다고 한다. 그 후로 조사가 거처하는 곳을 주실(籌室) 또는 조실(祖室)이라고 한다.

2) 격발(激發) : 쳐서 일깨워 주다.

3) 근식(根識) : 육근과 육식이니, 곧 자신의 근기를 지칭한 말이다.

4) 정견(情見) : 斷常二見에 떨어진 것이니,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면 斷見에 떨어지고, 단멸하지 않는다고 하면 도리어 常見에 떨어진다.

로 영긴 것과 같습니다. 지금 한번 웃음에 문득 풀렸으니 기쁘고 다행함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큰스님께서 자세히 드리워 주신 자비가 없었다면 어찌 여기에 이르렀겠습니까?

성 안에 이르면서부터 옷 입고 밥을 먹으며 자식을 안고 손자를 데리고 노는 갖가지 모습들이 옛 그대로이지만 매이고 막히는 감정이 없고 또한 기특奇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익숙한 습관과 오래된 장애도 또한 점점 경미해졌습니다. 떠나올 때 간곡히 일러주신 말씀은 감히 잊을 수 없습니다. 거듭 생각해 보니, 비로소 입문하게 되었으나 큰 법을 밝히지 못하여 근기에 따라 사람을 제접함에 부딪히는 일마다 걸림이 없지 않습니다. 다시 바라옵건대 이끌고 가르쳐서 마침내 도달함 있게 하시면 거의 법석을 더럽힘이 없을까 합니다.

答 李參政

示諭호대 自到城中으로 着衣喫飯하고 抱子弄孫하며 色色仍舊호대 旣亡拘滯之情하고 亦不作奇特之想하며 宿習舊障도 亦稍輕微라하니 三復斯語하고 歡喜踊躍호라 此乃學佛之驗也니 儻非過量大人이 於一笑中에 百了千當則不能知吾家の 果有不傳之妙며 若不你者인댄 疑怒二字法門을 盡未來際히 終不能壞라 使太虛空으로 爲雲門口하고 草木瓦石으로 皆放光明하야 助說道理라도 亦不奈何일러니라 方信此段因緣은 不可傳不可學이라 須是自證自悟하며 自肯自休하야사 方始徹頭니라 公이 今一笑에 頓亡所得하니 夫復何言가

편지에 보이시기를 성 안에 이르면서부터 옷 입고 밥 먹고 자식을 안고 손자를 데리고 노는 갖가지 모습들이 옛 그대로이지만 매이고 막히는 감정이 없고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며 익숙한 습관과 오래된 장애도 점점 경미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세 번 반복하고 뉘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을 배운 효과입니다. 한 번 웃는 가운데 백천가지를 통달하고 감당하는 도량이 넓은 대인이 아니었다면 불법문중에 전할 수 없는 묘妙함이 있음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처음 의심과 노여움뿐이었던 저의 법문을 미래제가 다하도록 끝내 허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태허공으로 저의 입을 삼고 초목와석에 모두 광명을 놓아 도리 설함을 돕게 하더라도 또한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야흐로 이러한 인연은 전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모름지기 스스로 밝히고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수공하고 스스로 쉬어야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공께서 이제 한 번 웃음에 얻은 것을 몰록 잊었다 하니 다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黃面老子曰不取衆生所言說인 一切有爲虛妄事하며 雖復不依言語道나 亦復不着無言說이라하니 來書所說이 旣亡拘滯之情하고 亦不作奇特之想이라하니 暗與黃面老子所言으로 契合이라 卽是說者는 名爲佛說이요 離是說者는 卽波旬說이니라 山野平昔에 有大誓願호대 寧以此身으로 代一切衆生하야 受地獄苦언정 終不以此口로 將佛法以爲人情하야 瞞一切人眼호라 公이 旣到恁麼田地하니 自

知此事는 不從人得이라 但且仍舊언정 更不須問大法明未明과 應機碍不碍니 若作是念則不仍舊矣
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말한바 일체 유위의 허망한 일을 취하지 말며 비록 다시 말에 의지하
지 아니하나 또한 다시 말없음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보내온 편지에 말한바 “이미 매이
고 막히는 감정이 없고 또한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은밀
히 계합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처님 말씀이라 이름하고 이를 떠나 말하는 것은 곧 마왕의 말입니다.
제가 평소에 큰 서원이 있었는데 ‘차라리 이 몸으로 일체중생을 대신해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끝내 이
입으로 인정人情을 지어 불법을 가지고 사람들 눈을 멀게 하지는 않겠다’ 공께서는 이미 이런 경지에 이르
렀으니 스스로 이 일은 남을 따라서는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다만 또 옛 그대로여서 모름지기
큰 법을 밝히고 밝히지 못하고, 근기에 따라 막히고 막히지 않고는 다시 묻지 마십시오. 만약 이러한 생각
을 한다면 옛 그대로가 아닙니다.

承호니 過夏後에 方可復出이라하니 甚愜病僧意로다 若更熱荒하야 馳求不歇則不相當也리라 前
日에 見公의 歡喜之甚일새 以故로 不敢說破는 恐傷言語러니 今歡喜既定일새 方敢指出하노라 此事
는 極不容易하니 須生慚愧하야사 始得다 往往에 利根上智者는 得之호대 不費力하고 遂生容易心하
야 便不修行하며 多被目前境界의 奪將去하야 作主宰不得하고 日久月深하면 迷而不返하고 道力이
不能勝業力이라 魔得其便하야 定爲魔의 所攝持하며 臨命終時에 亦不得力하나니 千萬記取어다 前
日之語에 理則頓悟라 乘悟併銷어니와 事非頓除라 因次第盡이라하니 行住坐臥에 切不可忘了하며
其餘古人之 種種差別言句도 皆不可以爲實지니 然이나 亦不可以爲虛니라 久久純熟하면 自然默默
契自本心矣라 不必別求殊勝奇特也니라

받아 보니 여름이 지난 뒤에 바야흐로 다시 나오게 된다 하니 심히 제 뜻에 맞습니다. 만약 다시 애태우
며 어지러이, 생각을 내달려 구하는 것을 쉬지 않는다면 옛 그대로와 서로 맞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 공께
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감히 설파하지 않은 것은 언어 때문에 잘못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은 기뻐함이 이미 안정되어 바야흐로 감히 가리켜 나타냅니다. 이 일은 매우 쉽지 않으니 모름지기 부끄럽
다는 마음을 내어야 비로소 옳습니다. 가끔 예리한 근기와 높은 지혜의 사람은 이것을 얻는데 힘을 들이지
않아서 드디어 쉽다는 마음이 생겨 곧 수행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경계에 현혹되어 다스리지 못
하고 날이 오래되고 달이 깊어지면 미혹하여 돌이키지 못하고 도력이 업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가 그 기
회를 얻으면 마의 끄는 바가 되며 임종 시에 또한 힘을 쓸 수도 없으니 천번만번 기억하십시오. 지난날의
말에 ‘이치는 곧 몰록 깨닫는 것이라 깨달음을 타고 아울러 녹지만 행위는 몰록 제거되지 않는지라 차례로
인하여 없앤다’ 하였으니 행주좌와에 간절히 잊지 말며 그 나머지 고인의 갖가지 차별된 언구도 모두 실답

게 여기지도 말 것이나 또한 헛되다고 여기지도 말 것이니 오래오래 순일하게 익으면 자연히 묵묵히 자신의 본심과 계합합니다. 따로 수승함과 기특함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昔에 水滌和尚이 於採藤處에 問馬祖호대 如何是祖師西來意닛고 祖云近前來하라 向你道호리라 水滌纔近前커늘 馬祖攔胸一踢에 踢倒라가 水滌가 不覺起來하여 拍手코 呵呵大笑어늘 祖曰汝가 見箇甚麼道理완마 便笑오

水滌가 曰 百千法門과 無量妙義를 今日於一毛頭上에 盡底識得根源去니다 馬祖便不管佗하시며 雪峰이 知鼓山の 緣熟하시고 一日에 忽然驀胸擒住曰是甚麼오 鼓山이 釋然了悟호대 了心便亡하고 唯微笑하여 舉手搖曳而已어늘 雪峯曰子作道理耶아 鼓山이 復搖手曰和尚하 何道理之有닛고 雪峯이 便休去하며 蒙山道明禪師가 趁盧行者하여 至大庾嶺하여 奪衣鉢이어늘 盧公이 擲於石上曰此衣는 表信이라 可力爭耶아 任公將去하노라 明이 舉之不動커늘 乃曰我는 求法이요 非爲衣鉢也니 願行者는 開示하소서 盧公이 曰不思善不思惡하라 正當恁麼時하여 那箇是上座의 本來面目이어노 明이 當時大悟하여 通身汗流하며 泣淚作禮曰上來密語密意外에 還更有意旨否잇가 盧公이 曰我今爲汝說者는 卽非密意어니와 汝若返照 自己面目하면 密意却在汝邊이니 我若說得인댄 卽不密也라하시니 以三尊宿의 三段因緣으로 較公於一笑中の 釋然컨댄 優劣如何오 請自斷看하라 還更別有奇特道理麼아 若更別有則却似不曾釋然也리라 但知作佛이언정 莫愁佛不解語어다

옛날에 수료화상이 등나무 캐는 곳에서 마조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마조가 이르기를 “가까이 오라. 너에게 말하리라.” 수료가 가까이 오자 마조가 가슴을 잡고 한 번 차버리니 차여 넘어졌다가 수료가 갑자기 일어나 손뼉을 치고 하하 크게 웃으니 마조가 말하기를 “네가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문득 웃는가?” 수료가 말하기를 “백천법문과 무량묘의를 오늘 한 찰나 간에 근원까지 싹 다 알았습니다.” 마조가 곧 상관치 않았습니다.

설봉이 고산의 인연이 익었음을 알고 하루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아 세워 이르기를 “이 무엇인가?” 고산이 확 풀려서 깨달았는데 깨달았다는 마음도 문득 없고 오직 미소 지으며 손을 들어 흔들 뿐이거늘 설봉이 이르기를 “네가 도리를 짓느냐?” 고산이 다시 손을 흔들며 말하기를 “화상이시여,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설봉이 곧 그쳤습니다.

몽산도명선사가 노행자를 쫓아 대유령에 이르러 의발을 뺏으려 하자 노공이 돌 위에 던지며 말하기를 “이 웃은 믿음을 표한 것이라 빼앗을 수 있겠는가? 그대가 가져감에 맡기노라.” 도명이 들어도 움직이지 않거늘 이에 말하기를 “저는 법을 구함이지 의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원컨대 행자는 열어 보이소서.” 노공이 말하기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 바로 이러한 때를 당하여 어느 것이 상좌의 본래면목인가.” 도명이 당시에 크게 깨달아 온 몸에서 땀이 흐르고 눈물을 흘리며, 예를 지어 말하기를 “위로부터 내려온 비밀한 말씀과 비밀한 뜻 외에 또 다시 뜻이 있습니까?” 노공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그대를 위해 말한

것은 비밀한 뜻이 아니거니와 그대가 만약 자기의 면목을 반조하면 비밀한 뜻이 도리어 그대에게 있나니 만약 내가 설하게 되면 곧 비밀한 뜻이 아니라.” 했습니다.

존귀한 세 분의 세 가지 인연과 공께서 한 번 웃음에 확 풀린 것을 비교하면 우열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따로 기특한 도리가 있습니까? 만약 다시 따로 있다면 도리어 일찍이 풀리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다만 부처 이름을 알지언정 부처가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古來得道之士가 自己를 既充足하고 推己之餘하야 應機接物에 如明鏡當臺하며 明珠在掌하야 胡來胡現하며 漢來漢現호대 非着意也라 若着意則有實法與人矣리라 公이 欲大法明하며 應機無滯인댄 但且仍舊언정 不必問人이니 久久하면 自點頭矣리라 臨行面稟之語를 請書於座右하라 此外에 別無說이니 縱有說이라도 於公分上에는 盡成剩語矣라 葛藤이 太多일새 姑置是事하노라

고래로 도를 얻은 사람은 자기를 이미 충족하고 자기의 나머지를 옮겨 근기에 따라 사람을 제점함에 밝은 거울이 거울대에 있으며 밝은 구슬이 손바닥에 있어서 검음이 오면 검음을 나타내고 붉음이 오면 붉음을 나타내되 뜻을 두지 않음과 같습니다. 만약 뜻을 둔다면 실법實法을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공께서 큰 법을 밝히며 근기에 따라 막힘이 없고자 하면 다만 옛 그대로 할지언정 남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 오래하면 스스로 머리를 끄덕일 것입니다. 가실 때, 대면하여 전해준 말을 청컨대 자리 오른쪽에 써 두십시오. 이 외에 따로 설할 것이 없으니 비록 설할 것이 있더라도 공의 분상에서는 다 군더더기 말이 될 것입니다. 쓸모없는 얘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又 (李參政問書)

邴이 比蒙誨答하사와 備悉深旨호이다 邴이 自有驗者三이니 一은 事無逆順히 隨緣即應호대 不留胸中이요 二는 宿習濃厚를 不加排遣하야도 自爾輕微요 三은 古人公案에 舊所茫然을 時復瞥地호니 此非自昧者니다 前書에 大法未明之語는 蓋恐得少爲足하야 當擴而充之언정 豈別求勝解耶릿가 淨除現流도 理則不無라 敢不銘佩릿가

제가 근래 가르침의 답장을 받고 깊은 뜻까지 완전히 다 알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경험한 것이 셋이 있는데 하나는 일에 좋고 나쁨이 없이 인연을 따라 곧 응하고 가슴 속에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두텁게 익은 습기를 물리쳐 보내지 않아도 저절로 경미해집니다. 셋째는 옛날에는 옛 선지식의 공안이 아득하였는데 때때로 다시 언뜻 보니 저절로, 어둡지 않게 되었습니다. 앞 편지에 큰 법이 밝지 않았다는 말은 적게 얻은 것으로 만족할까 염려하여 마땅히 넓히어서 채워 나간다는 것이지 어찌 따로 더 나은 견해를 구하겠습니까? 현재 흐르고 있는 번뇌를 깨끗이 제거함도 이치적으로 없지 않은데 감히 새겨 지니지 않겠습니까.

답

信後에 益增瞻仰하노라 不識커라 日來에 隨緣放曠하야 如意自在否아 四威儀中에 不爲塵勞의 所勝否아 寤寐二邊에 得一如否아 於仍舊處에 無走作否아 於生死心이 不相續否아 但盡凡情이언정 別無聖解니라 公이 旣一笑에 豁開正眼하야 消息頓亡하니 得力不得力은 如人이 飲水에 冷煖을 自知矣니라 然이나 日用之間에 當依黃面老子所言하야 矧其正性⁵⁾하며 除其助因하며 違其現業⁶⁾이니 此乃了事漢의 無方便中에 眞方便이며 無修證中에 眞修證이며 無取捨中에 眞取捨也니라 古德이 云皮膚脫落盡이라도 唯一眞實이 在하며 又如栴檀繁柯가 脫落盡이라도 唯眞栴檀이 在라하니 斯違現業 除助因矧正性之極致也라 公은 試思之하라 如此說話도 於了事漢分上에는 大似一臘月扇子어니와 恐南地에 寒暄이 不常이라 也少不得일새니 一笑하노라

편지를 받은 뒤에 더욱 우러러봅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요즘 인연을 따라 놓고 비워 뜻에 따라 자재하십니까? 행주좌와에 번뇌에 꼬달리지는 않습니까?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한결 같습니까? 옛 그대로인 곳에 일을 일으키는 없습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이 같이 이어지지는 않습니까? 다만 범부의 정을 다할 뿐이지 따로 성인의 견해는 없습니다. 공께서 이미 한 번 웃음에 바른 눈을 활짝 열어 사라졌다 생하는 마음도 이미 없으니 힘을 얻고 얻지 않고는 사람이 물을 마심에 차고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쓰는 사이에 마땅히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여 정성正性을 도려내고 그 번뇌를 돕는 원인을 제거하며 현업現業을 떨칠지니 이것이 일 마친 사람의 방편없는 가운데 참된 방편이며 닦아 증득함이 없는 가운데 참된 닦아 증득함이며 취하고 버림이 없는 가운데 참된 취하고 버림입니다.

고덕이 이르기를 “피부가 다 벗겨 떨어져도 오직 하나의 참된 실다움이 있으며 또 단향목의 우거진 가지가 다 벗겨 떨어져도 오직 참된 단향목이 있다.”라고 하니 이것이 현업現業을 떨치고 번뇌를 돕는 원인을 제거하며 정성正性을 도려내는 극치입니다. 공께서는 시험 삼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같은 말도 일 마친 사람의 분상에서는 한 자루 선달 부채와 같으니 남쪽 땅은 춥고 더움이 일정하지 않아서 또한 없앨 수 없으니 한번 웃습니다. 定慧社

5) 번뇌의 종자로서 음욕을 말한다.

6) 현재 가장 강하게 꼬달리는 욕구

경옥근 거사님 극락왕생기

서현書現 | 사집

염불을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이로움이 있다. 염불을 하면 호법신장이 염불하는 이를 보호하기 때문인데 실로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해서인지 중국에서는 염불을 중심으로 하는 정토종의 활동이 활발하다.

이 글은 대만의 '정토도황' 이란 사이트(www.jt8421.com)에 실려있는 왕생록 중 하나로써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하여 놓은 것인데 우리 강원 학인 스님이 직접 번역하여 기재하였다.

나의 모친이신 경옥근耿玉芹 거사님(중국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거사님이라 칭함)은 1938년 9월 6일에 태어났으며 2002년 음력 8월 28일, 세수 64세로 왕생하셨다. 모친은 평생 온갖 어려움을 겪으셨으며 여섯 명의 자녀를 두셨다. 모친은 마음씨가 착하고 도량이 넓었으며 동네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이제까지 남의 잘못을 따진 적이 없었다.

모친이 불법을 만나게 된 인연은 비교적 늦은 편인데 내가 출가한 뒤였다(나는 1990년 출가했다). 1997년 나는 속가 집에 부모님을 만나 뵈러 갔다. 모친에게 삼귀의를 전수한 후 염불할 것을 권장했다. 그 뒤로 모친은 틈만 나면 염불하였으며 이미 보리도의 씨앗을 서방극락세계에 뿌려 놓았다. 모친은 염불을 진지하게 하였으며, 불보살님을 대할 때 그 마음이 한없이 공경스러웠다.

얼마 뒤 모친은 병을 앓게 되었다. 그 때가 2001년 4월. 내가 싱가포르에서 공부하던 중이었는데 모친이 병을 앓고 있다는 전화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는 다만 당뇨병이라고만 말씀하셨다. 나중에 싱가포르에서 중국 도량으로 돌아온 후 곧 속가로 가서 모친을 뵈었다. 그리고 모친을 외진 시골에서 파언현 흥룡진에 위치한 염불당으로 모셔왔다. 염불당이 도시와 가까워 비교적 선진적인 의료설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적당히 정리하고 나서 곧 모친을 모시고 후란현 요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다. 검사결과 후두암이었다. 나는 의사에게 아직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의사는 이미 말기여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길어 봐야 3개월의 수명이 남았다고 했다.

나는 곧 모친을 모시고 염불당으로 돌아왔다. 나는 암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다만 기관지에

염증이 생겼다고만 말씀 드렸다. 염불당에 돌아 온 후 나는 모친과 함께 일심으로 염불하면서 인간세상에서 고통을 받지 말고 서방극락세계로 왕생할 것을 권하였다. 출가한 딸로서 나는 오직 모친이 서방극락세계로 왕생하여 삼계육도를 벗어나 다시 윤회를 하지 않는 것이 모친에 향한 지극한 효이고, 깊은 은혜를 최대한 갚는 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극락세계의 장엄한 모습들에 대한 설명과, 아미타불의 48대원, 그리고 널리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시겠다는 아미타불의 대비심과 대원을 말씀드렸으며, 또 많은 왕생사례에 관한 동영상 자료들을 보여 드렸다. 모친께서는 매우 기뻐하셨으며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원했다. 그 뒤, 나는 또 모친을 위해 경전을 인쇄하였으며 방생하고, 염불, 독경, 몽산시식(아귀들을 위한 시식)등을 하였고 모친께 복을 지어 정도에 태어날 수 있도록 회향하였다.

모친은 본래 호흡이 어려웠는데 어느 날 밤 병이 발작하여 우리들은 모친을 위해 두 시간을 조념助念하였다.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조념을 한 뒤 각자 방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였다. 이튿날 아침 모친은 나에게 어제 밤에 밤새도록 염불하였냐고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모친은 어젯밤에 대웅전에서 밤새도록 염불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염불소리는 은은하면서 아주 듣기가 좋았고 멀리서 들리다가 가까이에서 들리다가 하였는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염불소리라 했다.

두 번째 병이 악화되었을 때는 왕생하시는 줄 알았다. 잘 아는 거사님들과 연락하여 조념을 부탁했다. 하룻밤 조념을 하고나니 이튿날 모친의 정신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온 가족이 염불당에 모여 모친과의 영구적인 기념을 남기려고 비디오 촬영을 하였으며 사진을 찍어 두었다. 모친은 대단히 기뻐하셨다. 마치 병이 나은 것 같았다. 친척들이 왔을 때도 모두 모친을 위해 염불을 해주었다. 염불은 7일간 밤낮으로 지속되었다.

8일째 되는 날 아침 나는 모친께 꿈에 혹시 무얼 보지 못했냐고 여쭙봤다. 왜냐면 원친채주(怨親債主 : 전생에 원한 관계를 맺은 중생들) 귀신들이 찾아올까 두려워 매일 모친에게 여쭙왔던 것이었다. 모친은 줄곧 아무것도 못 보았다고 했지만 어제는 꿈속에서 온 방안이 전부 ‘아미타부처님’ 이었다고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던가요?”


“옷을 벗고 있었다.”

나는 얼른 모친에게 말씀드렸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의 몸은 옷과 같아 가짜 껍데기를 벗어 버려야 아미타부처님과 같은 금강불괴신, 장엄한 상호 안팎이 투명한 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모친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친은 연신 머리를 끄덕이셨다.

이날 이후부터 모친은 정신이 점점 더 좋아지셨고 안색도 점점 좋아 보였다. 호흡도 순조로



워졌고 병으로 인한 고통은 조금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다. 빠졌던 눈썹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길으면서 가늘고 굵었다. 조금 후에 오신 거사님들은 아픈 사람이 누구인지 조차 찾지 못하였다. 모친은 매일 매일 밖에서 산책까지 하셨다. 조념을 하러온 거사님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는 모두 병이 나았다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9일째 되던 날 아침, 모친은 기뻐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어제 밤도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

“왜요?”

내가 물었다. 그날 밤 모친은 우리가 휴식하러 간 후 눈을 감으니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친을 에워싸고 염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모친은 그 분들을 따라 밤새도록 염불을 하였다고 했다. 이튿날 밤에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을 내어 한 달에 두 차례 ‘대몽산’ 불사를 하여 배고픈 귀신들에게 시식하여 결연을 하였기 때문에 귀신들이 모친을 위해 염불을 해주었던 것이다. 시식해준 은혜를 보답하려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육도중생인 귀신들도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느 거사님께서서는 모친이 항암제를 복용하면 혹여라도 병이 완쾌하실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나는 하얼빈시에서 항암 약을 사서 모친에게 복용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서방극락세계 왕생을 발원해야 합니다. 만약에 수명이 다했다면 아미타부처님께서 오셔서 극락세계로 인도할 것이고 만약에 수명이 아직 남았다면 병이 저절로 나아질 것입니다.”

모친은 나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셨다. 바로 아미타불 불상 앞에서 극락왕생하기를 발원하셨다. 그 때가 약을 복용한지 4일째 되던 날이었다. 그날 밤 10시 쯤 되었을 때 모친의 병이 또 악화되기 시작했다. 어느 거사님 한 분은 내가 의사를 모시지 않은 것을 알고 현에 있는 의사 한 분을 모셔왔다. 그리고 나에게 모친을 현 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나는 그분의 호의를 사절했다. 그 순간 오로지 모친을 서방 극락세계로 왕생하게 해야겠다는 생각 뿐 다른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모친은 의사가 오신 것을 보고는 물었다.

“의사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의사선생님은 어머니의 병을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오로지 극락왕생을 구하십시오. 이 세상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은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내생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할 시간입니다. 천당, 지옥 아니면 극락정토를 가실건지 모두 어머니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염불하여 극락왕생을 구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육도윤회를 해야 합니다. 지옥, 아귀, 축생의 고통을 어찌 말로써 다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오직 아미타불만이 어머니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 부처님 명호를 꼭 잡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친은 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시며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다. 12시쯤 되었을 때 방 안에는 한 줄기 향기가 가득 풍기었다. 모친이 연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방 안에서는 향을 사르지 않았다. 당시 왕서민 거사님이 계셨는데, 마음속으로 '만약에 이 노인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면 아미타불께서는 이런 향기가 세 번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처님께 빌었다. 그 뒤로 과연 향기가 세 번 나타났다. 그 자리에 있던 나와 많은 거사님들도 전부 향기를 맡았다. 나의 부친은 본래 불교를 믿지 않으셨지만, 당신께서도 향기를 맡고 나서 불법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되었다. 채식하시면서 염불하여 극락왕생하기를 발원하셨다.


2001년 10월 14일(음력 8월 28일) 아침 8시쯤 모친이 극락세계 연못에 심은 연꽃이 무르익었다. 몸을 일으켜 앉더니 부처님께 절을 올리면서 입으로는 "아미타불께서 나를 영접하여 극락세계로 왕생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 때 모친의 목에 걸고 있던 대비주와 불상이 갑자기 떨어졌다. 모친은 두 손으로 주워서 불상을 들고 바라보시고는 옆에다 내려놓았다. 그리고 양손을 들어 합장하면서 염불을 하셨다. 문득 보니 입이 몇 번 움직이더니 곧 왕생하셨다. 26시간 후 모친의 옷을 갈아 입혔다. 얼굴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 같았고 주무시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다.

당시 기상청에서는 3일 연속 비가 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후에 한바탕 비가 내려 쌓인 먼지와 때를 깨끗이 씻고 나니 천지가 맑고 새롭게 보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아미타부처님께 가피력으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후 비록 날씨가 흐리고 어두웠으나 다시 비가 오지 않았다. 조념이 15일 밤 12시쯤 이르렀을 때 하늘은 점점 개이기 시작했다. 16일 아침 9시(출관하는 당일) 바람은 부드럽고 날씨는 따뜻했다. 하늘은 온통 짙은 남색이었으며, 한 점의 구름도 없었다. 화장터에 이르러서는 요불繞佛하는 방식으로 영결식을 진행했다.

화장을 할 때 화장로에서 아름다운 염불소리가 들려왔다. 뿐만 아니라 《아미타경》을 독송하는 소리와 법기의 소리가 귓가에서 끊이지 않았다. 나는 환청이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혹시 염불소리를 듣지 못했냐고 물었더니 모두 들었다고 대답했다. 그 자리에 있던 백여 명의 대중들도 전부 들었다는 것이었다.

얼마 후 유골이 나왔다. 유골의 색은 산뜻하고 아름다웠다. 우리가 유골을 수습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법사님 한 분이 빨리 밖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불렀다. 이 때 하늘에는 일곱 빛깔 채색구름이 나타났다. 구름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넘실넘실 번지고 있었다. 색깔은 찰나찰나 변화하였고 눈부시게 빛났다. 나중에는 세 송이의 연꽃으로 변화하였는데 연잎마저 뚜렷하게 보였다. 그 밑은 연화좌였고, 둘레에는 연잎이 보였다. 조금 지나니 서방삼성西方三聖의 모습으로 변화하였는데 그 모습은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하였다.

당시 미용학원 선생님이었던 거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18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영결식에 참석했다. 학생들은 전부 청소년들이었는데 이러한 서상(瑞相 : 상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본래 불법에 대해 반신반의했는데 오늘 이러한 서상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으므로 불법의 불가사의함을 느꼈고 불법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다질 수 있었다.

화장터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화장터에서 들었던 낭랑한 염불소리가 계속 나의 귓전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거사님에게 이 상황을 얘기 했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에게는 스님이 평생 기뻐할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화장할 때 염불소리를 듣고는 화장을 하는 사람마다 염불소리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친의 유골이 화장로火葬爐에서 나온 후 그 다음으로 화장하는 시신을 관찰했다. 다음 시신이 화장로에 들어간 후 염불소리가 곧 그쳤다. 이로서 염불소리가 모친을 화장할 때만 나타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들은 비록 슬펐으나 한 사람도 울지 않았다. 도리어 모친을 위해 기뻐했다. 왜냐면 모친이 이미 서방극락세계로 왕생하였음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수화(綏化:지명)에서 온 거사님들은 오전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모친께서 이처럼 좋게 왕생하였는데 비디오테이프에 반드시 다른 서상이 남아있을 것이라며 테이프를 보고 나서 가겠다고 했다. 그 때 나는 마음속으로 영결식을 진행하던 홀에는 주변 창문들이 검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광선이 매우 어두웠으므로 찍은 비디오가 매우 흐릴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비디오의 화면은 매우 깨끗하고 뚜렷했다. 벽 쪽에는 한 폭의 이강(漓江) 산수화가 있었는데 화면에는 한 존의 희고 빛이 나는 관세음보살님이 보였다. 정면 양쪽에는 만련(挽聯: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대련)이 있었고 가운데는 전횡자가 있었다. 만련과 ‘전’ 자는 본래 흰색이었는데 모두 황금빛으로 변했고, 마지막 남은 한 글자만이 본래의 흰색이어서 특별히 눈에 띄었다. 마치 사람들을 일깨워 주는 것 같았다. 더욱 불가사의한 것은 창문을 가리고 있던 검은 색 커튼들이 전부 붉은 색으로 변한 것이다. 매 창문마다 한 분의 아미타불이 나타났는데 반짝이면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동쪽의 창문에는 모친이 임종 시 찍은 사진 한 장이 나타났는데 입고 있던 옷의 색까지 분명하게 보였다. 당시 비디오를 보던 사람들은 경탄의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하늘의 채색 구름을 비디오로 보니 아래는 일곱 빛 연꽃이었고 거사님들이 요불할 때 몸이 전부 허공과 동화되었다. 그 속에서는 무수한 백련화가 나타났으며 또 흰 구름이 있었고, 모퉁이를 돌 때 창문에서는 한 송이 분홍색의 연꽃이 나타났다. 그 빛은 사방을 환하게 비추었으며,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리고 하늘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여졌으며 마치 아름다운 노을 같았다.

당시 조념단의 단장團長이신 추려위鄒麗偉거사님은 왕생을 보내는데 경험이 아주 많으신 분이였다. 나는 그에게 모친이 만약 극락왕생하였다면 반드시 나에게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했다. 추거사님은 만약 진실로 극락왕생하였다면 7일내로 반드시 소식이 있을 거라고 했다. 그는 이 방면에 많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3일 짜 되던 날 새벽 5시에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이렇게 이른 시간에 누가 전화하였을까 생각했다. 내가 전화기를 들으니 추거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매우 흥분해 있었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는 모친이 그에게 극락왕생하였다고 말씀하셨다고 했고 다만 품위 品位가 높지 못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꿈에서 모친께서 왕생하실 때의 상황을 보았다고 했다(모친이 왕생하실 당시 그는 자리에 없었다). 그는 모친이 침대에 앉아있었고 호흡이 점점 어려워지자 힘껏 염불을 했다고 했다. 바로 이때 아미타불께서 창문에 모습을 나타내셨다. 모친께서는 아미타부처님이 오신 것을 보고 한없이 기뻐하시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아미타불을 불렀다. 그러자 신식神識이 정수리에서 빠져나와 아미타불을 따라가셨다고 했다.

추거사님은 꿈에서 깨어나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단지 꿈만으로 어찌 한 사람이 왕생을 하였는지 못하였는지를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또 생각했다. “만약에 경옥근 노거사님께서 저에게 왕생의 소식을 전해주려 오셨다면 제가 정에 들게[八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이 왕생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생각을 마친 후 3분도 안되어 그는 입정 상태에 이르렀다. 이때 모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만 범부들이 모를 뿐이다.” 그리고는 입정에서 완전히 깨어났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뒤로는 잠이 오지 않았다 한다. 본래 두 시쯤에 전화를 하려했으나 결국 참았다고 했다. 그래서 아침 5시가 되어서야 나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다.

이상은 모친께서 서방극락세계를 왕생한 전부의 경과이다. 지금 이것을 글로 써서 여러분들에게 공양 올리니 바라건대 부처님을 배우는 모든 범우님들이 서방극락세계에 대한 충분한 믿음을 내어 아미타불의 48대원을 굳게 믿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만인이 닦아 만인이 극락왕생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란다. 나의 모친의 왕생이 바로 아주 좋은 실례이다. 아미타불의 십념필생원이 진실하며 허망하지 않음을 증명하였다.

오로지 노실하게 염불하면 반드시 부처님의 접인을 받고 한 번 왕생하면 절대 물러나지 않고 반드시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여기서 특히 모친을 위해 조념해주신 여러 법사님들과 여러 범우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모친께서 왕생품위가 높아지기를 축원 드리고 하루 빨리 원력을 타고 다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널리 중생들을 구제하시기를 바란다.

- 聖法法師 -

지덕방 이야기



도반

승찬乘贊 | 사집



2년 전 동안거 정혜사 앞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따뜻하게 맞이해주었던 D스님! 겨울 한철을 윗반스님과 아랫반으로써의 관계로 그렇게 겨울을 났다. 그리고는 치문반을 마치고 사연이 있어서 대구 동화사로 갔다가 1년 후 J스님에서 D스님이 되어서 지금의 우리 반으로 복학했다. 이제 윗반 아랫반이 아닌 지대방 도반으로 함께 수행하고 있다. 스스로 머트러운 스님의 대명사라고

표현한다. 나 또한 머트러움 때문에 정혜사 큰방 저녁공사에서는 언제나 공사의 표적이 되곤 한다. 어떤 날은 저녁공사에 합장저두를 수도 없이 많이 하는 경책의 대상이다. 전혀 닻지는 않았지만 거시기 스님과 머시기 스님이다.

한번은 도서관에서 깜박 졸음으로 인하여 아침공양에 착석시간을 놓쳤다. 둘이서 정신없이 정혜사 큰방에 들어섰을 때 이미 모든 스님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다. 그 눈총과 질타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맛볼 수 없다. 물론 그날 저녁공사에서 우리는 각자가 자참 발표를 해야만 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침공양 시 착석시간 미준수로 인하여 대중스님들께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이에 삼경 이후 지장전에서 한 시간 자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발표가 끝나자 웃을 자격이 있는 윗반스님은 웃고 그럴 수 없는 아랫반 스님은 속으로 키키키... 했으리라. 그로부터 보름도 되기 전에 도서관에서 논강을 하다가 또다시 아침공양 착석시간을 놓치게 됐다. 물론 처음보다 더 강력한 눈총과 질타를 받아야 했고 그날 저녁 공사에 똑같은 자참 발표를 해야 했고 둘이서 삼경 이후 지장보살님을 친견하러 가야했다. 그날 이후 서로 다짐했다. 다시는 둘이서 함께 자참 발표를 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고.

얼마 후 D스님은 멋지게 한 건 했다. 소임이 송광사 대강당 대웅전 부전스님이다. 저녁 예불 시간이었다. 종고루에서 법고, 대중, 목어, 운판이 끝나고 법당에서 종성을 받으면 부전스님이 집전을 시작한다. 70여 명의 대중스님들이 엄숙하게 선창을 기다리는데 느닷없이 아금청정수 변위감로다~ 아뿔싸 새벽예불시 해야 할 다게가 저녁예불에 시작되었으니 야단났다. 되돌릴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다. 대중스님들은 부전스님의 뒷모습을 보며 활을 쏘고 있었다. 어찌 하랴 부전스님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저녁에, 새벽에 해야 할 예불을 하게 되었으니 그날 저녁

공사는 뜨거웠다. 이후 지대방에서는 D스님을 송광사의 전설이라고 놀린다. 참고로 그 전에는 공사 발표 때 '상강례시 천수행익 미숙' 이라고 발표했던 스님이 지대방의 꽃이었다. 도반스님들과 대중스님들께 백일장을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끊임없는 경책과 탄마를 기대하며 삼가고 계속입니다. **定慧社**

떡국 먹는 날

고담古潭 | 치문



수요일과 일요일 아침공양은 개인적으로나 치문반 전체적으로나 매우 기다려지는 특별한 날이다. 다름이 아닌 떡국+치즈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이다.

새벽간경이 끝나고 수두소임시간 20분 동안은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인다. 오늘은 어떻게 요리해서 먹을까?

담백하게 먹을 때 -

치즈 한 장을 입가심으로 먹고 1/2간장 숟가락, 콩자반 몇 개를 떡국에 넣어서 먹고 치즈 한 장은 후식으로 먹는다(원래는 개인당 치즈 한 장이나 나는 2장을 먹는다).

화려하게 먹을 때-

떡국 위에 치즈를 깔고 김치 몇 조각을 치즈와 나란히 얹고 김가루를 조금 넣고 마무리로 콩자반 몇 개를 곁들이면 그 광경이 와~ 기가 막힌다.

그리고 모듬으로 먹을 때는 화려하게+밥을 하면 하루가 든든하다.

내가 출가하여 먹은 떡국 양이 속가에서 31년 동안 먹은 양보다는 분명히 많을 것이다. 왜 이렇게 떡국에 집착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기 송광사에서는 아침공양은 죽+예비밥

이라 씹는 즐거움도 없고 예비밥은 아침에 새로 지은 밥이 아니고 어제 남은 밥이라 윤기가 없고 보기에다 먹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먹고 난 뒤 회발하면 왠지 배가 고프고 허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한참 먹을 때이며 울력 많이 하는 치문반이라서 그런가). 이렇다 보니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배에 포만감을 오전 내내 느낄 수 있는 이 날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것 같다. 보통 떡국이 나오는 날 치문반 스님들의 먹는 양은 죽보다는 배 정도로 많다. 죽이 나올 때는 한 국자 정도 먹는데 비해 떡국은 두 국자 이상 먹는다.

그러나 이렇게 식탐을 충족시키고 난 뒤에는 꼭 한 가지 탈이 생긴다. 바로 졸음이다. 강의 시간에 그 참을 수 없는 달콤함을 감출 수가 없다. 그래서 요즘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찢하게 차를 한 잔 마시고 강의를 듣는다. 이게 효과가 있는지 요즘은 강사스님께 덜 죄송하다.

이렇게 생활함에 무슨 공부라 될 것인지는 모르나 큰방에서 송광사의 모든 대중스님과 같이 앉아서 말없이 공양하는 모습을 보면 출가해서 이렇게 생활하는 인연이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단 울력이 너무 많고 윗반스님 대하기가 어렵다는 점만은 빼고. 마지막으로 하루 세끼 정성으로 챙겨주시는 후원보살님, 행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꼭꼭 씹어서 맛있게 공양 잘 하고 있습니다. 定慧社

머리 큰 스님? 발 큰 스님?

혜원慧圓 | 치문

따르릉... 따르릉...

“여보시오.”

“엄마! 내다.”

“응. 웬일이고?”

“엄마... 내 출가한다.”

“...”

“...”

“후... 단디 잘해라잉~ 너는 잘 할 수 있을끼다.”

“그래 잘 있고, 잘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그리고는 송광사 아니 순천을 찾아갔다. 송광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고서는 순천으로 내려갔다. 좀 익숙한 통도사나 해인사가 있었지만 두 절 모두 형들이 출가했다가 속퇴한 절이라 그런지 걸음이 가질 않았다. 내게는 형들이 많다. 형제가 호적상으로 12남매이다. 이 정도면 축구팀을 만들어도 한 명을 후보 선수로 둘 수 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축구팀 감독이나 선수였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스님이었다(아버지는 미스터리한 인물이다). 물론 그 12남매는 한 배에서 다 나온 게 아니다. 다섯 배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다섯 번째 부인인 셈이다.

그 12남매 중 막내인 나는 아버지 나이 50에 세상에 나왔다. 당시 어머니는 32살이었다. 친형제는 삼형제였지만 바로 윗 어머니의 아들 둘도 그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우리 어머니가 같이 키웠다. 그래서 5형제, 열 서너 살 때까지 모두 친형제로 알만큼 어머니는 차별 없이 키우셨다. 그리고 그 위의 형제들도 모두 왕래하며 친숙하게 지낸다. 아무튼 스님 아버지의 영향인지 형들이 출가를 많이 했었다. 바로 위의 세형들도 출가를 했다가 속퇴를 해서 출가는 이미 가정사의 한 부분이었다. 안부전화 하듯이 그렇게 전화 한통으로 출가를 통보하고 나온 지 1년여 후 불쑥 집을 찾았다. 보는 순간 “아이고~ 스님 오셨습니까?” 하며 자주 보는 스님에게 인사하듯 합장한다. 감동적이고 눈물겨운 상봉장면은 기대할 수 없다. 그렇지만 “매운 것도 못 먹을 텐데.” 하시며 국수를 삶아 낸다고 부산을 떠는 모습이 그 어느 어머니 못지 않다.

수계하고 나니 원주스님 왈 “어머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했었어요. 잘 있는지.”

평생 ‘이거 해라 저거 하지마라’ 하지 않으시고 그저 지켜만 보아주신 어머니.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그 걱정은 나이만큼 깊으시리라.

조용히 한담할 때 “큰 스님 되어야죠.” 하시던 어머니.

“머리가 큰 스님? 아니면 발이 큰 스님?”

“뭘가 큰 스님이 될까?”

나는 방에 걸려있던 탑 다라니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탑을 봐라. 제일 큰 놈은 어디에 있노.”

“제일 큰 놈은 항상 남들 보다 제일 아래에 있는 놈이다.”

“그리고 저 탑도 더 큰 땅덩어리가 받치고 있고...”

“그 땅덩어리는 크기도 알 수 없는 허공에 둥둥 떠 있을 뿐이다.”

“자, 어떤 큰 스님이 될까?”

출가. 그것은 세상과 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떠나는 길...

어머니, 저는 무엇이 되려고 출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머니가 자식에 쏟는 사랑과 정성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께서 이웃의 소아마비 장애우들을 돌보며 작은 차도에도 눈시울을 붉히며 가슴 메어 하실 때 저는 어머니의 그 마음에서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매일 새벽 금강경을 독송하지만 어머니의 그 무주상하는 보살행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부처님의 그 어떤 위없는 가르침보다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대하는 어머니의 그 한마음이 더 큰 감동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말 없는 가르침에 따라 살겠습니다.

지금도 TV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고 계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건강하소서. 定慧社

숨어 있던 관세음보살

확연廓然 | 치문

하안거 결제기간 중에 송광사는 일반 불자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실시한다.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인데 이 수련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발우공양을 필히 하게 된다. 따라서 수련생들의 발우공양 준비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후원에서 일을 돕게 한다. 그리고 발우공양을 위한 찬상을 차리려면 자원봉사자는 찬상 차리는 습의를 익혀야 한다. 하안거 기간 중 송광사에 행자님들이 몇 명 없어서 불쌍한 우리 치문반 스님들이 후원 지원을 나가게 되었다.



나도 본사행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후원지원을 빈번하게 나갔는데 이 때 후원지원을 같이 가게 된 스님이 BJ스님이었다. 사실 걱정이 조금 되었다. 재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후원에서 BJ스님은 나이가 많아 행동이 빠르기는 힘들 것 같고 또 까칠한 성격으로 우리 반에서 가장 유명한 스님이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미숙한 대중생활과 하심이 안되는 태도로 인해 저녁 공사시간만 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사집반 스님들로 부터 집중포화를 당하는 BJ스님이었다. 그동안 BJ스님과 대화를 별로 해본 적은 없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BJ스님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었다.

그래도 이왕 잘해보리라는 결의를 하고 새벽 발우공양 찬상 준비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준

비를 시작하자마자 사건이 터졌다. 하지만 정작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BJ스님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

그 날 찬상에 야채로 양배추가 나가기로 되어있었다. 찬상에 나가는 양배추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자원봉사 오신 보살님들 몇 분을 모아놓고 바로 양배추 자르는 습의를 시작했다. 여법하고 유별난 송광사답게 양배추도 대충 자르지 않는다. 45° 각도로 양배추를 기울여서 손가락 두 마디의 길이로 나누어서 부채꼴 모양으로 썰어 줘야 한다. 아무튼 이러한 방식으로 칼질하는 것을 계속해서 자신 있게 보여줬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자원봉사자들을 너무 의식했는지 부채꼴로 썰다가 그만 내 손가락을 45° 자르고 말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손가락이 아니라, 손톱과 살점이 함께 삼분의 일 정도로 떨어져 나갔다. 순간 뜨끔했다. 또 뜨거웠다. 그리고 내 심 놀라고 당황했다. 철철 넘쳐흐르는 피를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 그놈의 45° 부채꼴 칼질을 자신한 나머지 방심한 것이 화근이었다. 정말 후회가 컸지만 일은 이미 벌어진 뒤였다. 그래도 일단 정신을 다시 차리고 놀라서 기겁하는 보살님들을 진정시킨 뒤 다른 일을 시키고 간병실로 향했다.

상처는 예상보다 많이 심했다. 내 평생 그렇게 많은 피를 본 것은 처음이었으니까... 안되겠다 싶어서 저온창고에서 물김치 주전자를 준비하고 있는 BJ스님을 불렀다.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BJ스님 외에 달리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었다(모두 새벽예불 중이었으니까). BJ스님한테 까불다가 큰 코 다쳤다고 핀잔이나 먹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웬걸? 핀잔은 커녕 BJ스님은 나를 신속하게 간병실로 데려가더니 능숙한 솜씨로 약을 바르고 뿌리고, 솜이며 밴드며 붕대를 능숙한 솜씨로 테이핑 해주었다. 비록 내 손가락이 처한 상황은 끔찍했지만, BJ스님의 응급치료에는 정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스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 이런 걸 배우신거예요? 스님이 갑자기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상하잖아요.” BJ스님이 치료를 해주는 동안 따뜻하게 건네는 말들은 자상한 아버지와 같았고(실제로도 아버지뻘이다) 놀란 나에게 안정과 큰 위로가 되었다. 이때의 BJ스님은 까칠함의 대명사가 아니라 자비의 관세음보살이었다.

간병실에서 나를 치료해주는 BJ스님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많았다. 우선 아무리 자신 있는 일이라도 쉽게 정신을 놓지 말 것이며,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진 이미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한 사람을 그릇되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산이며 허물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성격이 남들이 볼 때 조금 거칠고 생활이 다소 미숙하다고 해서, 이 사람의 모든 면이 이런 점들로만 가득찬 것은 아니며 하나의 보여지는 성격으로 전체가 그럴 것이라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은 조각된상이나 탕화나 어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J스님에게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성품이 숨어 있었는지를 누가 알았을까? 우리의 마음과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뿐이다.

BJ스님은 내가 다친 날, 나를 대신해서 새벽공양 준비를 차질 없도록 잘 해주었고, 이 날부터 상처가 아물 때까지 보름이 넘는 기간을 계속해서 병간호를 해주었다. 오히려 가끔씩 치료 받기를 귀찮아하는 나를 끌고 가서 매일매일 새롭게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새로 감아주며 상처를 돌봐주었다. 병원에서는 상처부위를 꺾매고 파상풍 주사도 맞아야 된다고 했지만, 모두 하지 않고 지금처럼 손가락을 다시 회복한 것은 BJ스님의 정성스러운 간병 덕이었음이 분명하다. 참고로 매우 무겁고 습한 송광사 하안거 기간 동안 가장 힘들고 쉴 시간도 없는 치문반 시절에 보름이란 기간을 다른 사람의 간병을 위해 할애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안타깝게도 BJ스님은 하안거 해제 일에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 인대를 크게 다치고 말았다. 이 일로 인해서 BJ스님은 본인에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강원에 다시 복귀하지 못하게 되고 내년을 기약하게 되었다. 나를 열심히 치료해준 BJ스님의 모습을 떠올리니 마음이 아팠지만, BJ스님이 이번에 다친 일이 오히려 큰 계기가 되어 공부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다.

BJ스님! 저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절대 도외시하지 않고 제 힘이 닿는 대로 정성껏 간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덧붙이는 글

그날 새벽에 내 피를 보고 놀란 보살님들께 이 자리에서 위의 없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저도 많이 망신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 날 사용한 칼이, 전날 칼을 전문적으로 가시는 처사님이 두 번이나 아주 열심히 갈았다는 사실! 어쩐지 그날 따라 양배추가 잘 썰리더라... 그리고 BJ스님이 현재 많이 치유가 되어서 이제는 목발을 짚지 않고도 잘 걸어 다닌다고 하니 참 다행이다. BJ스님도 앞으로는 저처럼 덤병대지 마세요. 定慧社



정혜탐방

서울 금강선원 선원장 禪院長
혜거 慧炬 스님

서울 개포동에 있는 금강선원을 찾았다. 들어서니 누가 사무장이신지 누가 신도분인지 모를 만큼 다들 분주하게 움직이고들 계셨지만 편집진 일행이 들어서니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려 법당으로 들어서니 법당 한 구석에는 또 다른 신도분들이 빙 둘러앉아 공부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계셨다. 이렇게 스님에게 강의를 듣고 또 따로 모여서 토론도 하는 모습이 금강선원의 분위기를 상징하는 듯 했다. 한 보살님의 안내로 스님께서 계시는 방에 들어서니 편안하고 소탈한 음성으로 “멀리서 오느라 고생이 많았네요.”라며 반갑게 맞아주신다. 방은 아주 단출하게 꾸며져 있었고 책은 두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운데 노스님이신 한암 스님의 사진이 눈에 띈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바쁜 일정 속에서 사시면서도 우리를 보시고는 강원을 졸업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썩 좋지 않다면서 학림이나 승가대학원에 들어가기 전 스님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기관을 만들고 싶다 하셨다.

스님은 어려서부터 서당을 다니셨다. 한참 학문에 대한 열의가 넘칠 때 6.25한국전쟁이 발발하여 공부는 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집안에 불교학자인 김지점 박사께서 출가를 권유하고 또 탄허스님께 편지도 써주고 하셨다 한다. 그래서 탄허스님이 계신 영은사에서 출가하게 되셨다. 출가하고 처음부터 탄허스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 때 당시 탄허스님 회상에서는 속인, 스님 관계없이 전 대중이 강의를 들어야 했다. 공양주마저도 공양을 짓지 아니하고 강의에 참석하게 되어 3년간 아침에 했던 찬밥을 사시 때 그대로 잡수셨다 한다. 그만큼 열정이 있는 분이었는데 어린 나이인데도 글을 잘 따라하는 스님을 참 좋아하셨다고 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아쉬운 것은 시간을 야물지게 쓰지 못하고 누수해버린 것이고 수행하는데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큰 발심이 너무 늦어진 것이라 하셨다. 절집 풍토가 누가 누굴 간여하지 않아 자유로운 대신에 발심이 해이해졌을 때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시간을 낭비하기가 딱 쉽다. 그리고 공부하는 순서도 까딱 잘못하면 일생을 잘못 갈 수 있으므로 기본교육을 철저하게 다지라는 당부의 말씀도 하셨다.

스님의 원력에 대해 여쭙니 공부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하시며 탄허스님께서 항상 천하 사람들에게 표본이 되는 사람, 일개국가와도 바꾸면 아까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그런 영향 때문인지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

한다.

“역사적으로 중국에 애국지사가 나오면 우리나라가 꼭 망해요. 주나라의 강태공, 한나라 무제, 당 태종 같은 사람 때문에. 반복해서 반복해서. 그 때 알았지. 인간에게만 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도 업이 있구나. 인간 개개인이 그런 업에서 벗어나려면 공부를 완성해야 돼요. 내가 완전히 바뀌어야만 업이 달라져. 나라의 업이 중국의 어떤 애국자가 나와도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나라가 되려면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전반적으로 바뀔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대승불교의 핵심사상인 보살사상입니다.”

4년 전부터 연구해오고 계신데 보살의 연원, 어떤 연유로 보살이 등장했고 어떤 분들을 보살이라 부르게 됐는지, 그러한 경지에 이른 분들은 나라마다 누구누구인지 등등 보살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모으고 계신다. 물론 수 없이 많은 보살을 지금 이 시대에 보고 싶은 스님의 바람 때문일 것이다. 지금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방황하며 폭력적이거나 메말라 있는 현실에 대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며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 보살의 절심함 또한 느꼈다.

그런 원 덕분인지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책과 인터뷰, 강의에서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을 이번에도 해주셨다.



수행체계에 대해서는 “원각경과 능엄경은 이유가 같습니다. 각 경전에 있는 육바라밀을 모아 압축시켜 핵심만 짚 뽑아서 단행본으로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깜짝 놀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 대승경전 속에는 굉장히 추상적인데 치우쳐져 있는데 남방인 소승경전 속에는 전부 현실적이어서 굉장히 알아듣기가 쉬워요. 참아라. 그러면 무얼 참느냐 이걸 이걸 참아라 구체적으로 제시를 다 해요. 멈출 ‘止’, 사마타 수행법은 대승불교 쪽에서는 마음 안 일

“배워버리면 그만이고 물으면 알 것을, 앗아가지고 해결하려 하면 그건 터져봤자 한 마디로 배워버리는 것이 낫다. 배울래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을 때, 물을래야 물을 곳이 없을 때 그 때 참선해서 해결해라. 그러면 그게 향상되는 거잖아요.”

향상의 끝은 부처님과 조사스님들과 함께 춤추는 자리일 것이다. 아상이 깊은 사람은 배우려는 마음을 내지 않아 퇴보하게 된다. 배운다는 것과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을 많이 착각하고 살았음을 알았다.

교리체계로는 기신론, 사상으로는 금강경, 수행체계로는 원각경과 능엄경을 강조하셨는데 기신론은 완전하게 외워서 소화가 되고 나면 굉장히 정밀하게 체계가 잡히고, 금강경은 아상을 감지하는 교과서로서 중생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我’ 하나 뿐이어서 아상의 실체를 철저히 감지하면 자연히 내버려지게 되어 있다 하셨다.

어나야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말은 딱 맞는데 추상이란 말이야. 어떤 마음을 안 일어나게 해야 하는지도 대체가 이게 아주 가닥이 잡힐 듯 말 듯 그래요. 근데 그걸 능엄경에 보면 마음 안 일어나는 거 다른 게 아니라 탐진치를 안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경전에. 그러면 안 일어나는 것 간단하잖아요. 탐욕 안 일으키고 진심 안 일으키고. 그러면 탐욕 하나가 안 일어나면 나머지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탐심이 강한 사람, 진심이 강한 사람 전부 다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 나는 지금 병이 어디 있구나’ 얼른 알아차려서 그 쪽을 집중을 해서 수행하면 돼요.”

경전을 볼 때 원전을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문 경전을 원전으로 안 배우고 번역본으로 봐서는 그 경전의 원뜻을 실감하기가 어렵고 설명할 때

석달 정도 한 시간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빠지지 않고 썼을 때 자기 거울을 보듯 해요. 그게 자기 업이란 말이여. 근데 그게 언제 없어지냐. 화두가 꼭 차서 일념 몰입되면 그 생각이 안 일어나잖아요.

는 속이 시원하게 막힘없이 설명할 수가 있는데도 글로 번역을 하면 아무리 잘하고 해를 지나고 두고두고 고쳐 봐도 맘에 들게 할 수 없다고 하신다. 그래서 책을 준비해 놓고도 내지 못하고 있는 책이 굉장히 많으시단다. 금강선원에 다니시는 신도분들께도 한자능력검정시험 1급을 많이 권장해서 이제는 신도분들이 경전강의를 빨리 따라올 수 있어 성취감도 느끼신다고 한다.

참선에 대해서도 수행하신 내용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앉아 있으면 남이 보면 근사하지마는 가시내 생각이 수십 번 왔다 갔다, 그러다가 어찌다가 화두가 삐쩍 들렸다가 화두는 잠깐이고 또 딴 생각이야. 지나간 생각, 앞으로 꿈이 또 벌어지기 시작하면 뭐 이거 허공에다 막 기와집 짓고 난리치거든요. 그러다가 어찌다가 화두 한번 이러거든. 근데 그것도 오늘은 화두가 몇 번 들리고 잡념이 몇 번인가 그러면서 나중에는 점점 화두가 많이 들려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말이여. 잡념은 적어지고 화두 들리는 시간은 더 자주 들리죠. 점점 가다보니까 나중에는 화두가 꼭 차버린단 말이여. 그러면 그게 참선 아니요. 그럴라 그러면은 석 달 정도 한 시간동안 일어나

는 일들을 빠지지 않고 썼을 때 자기 거울을 보듯 해요. 그게 자기 업이란 말이여. 근데 그게 언제 없어지냐. 화두가 꼭 차서 일념 몰입되면 그 생각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이걸 반복해 주는 거예요. 이 몰입된 상태를. 그러면 억겁의 모든 업이 그 순간에 소멸돼요.” 그리고 발심이나 계기가 없이 앉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시며 진짜로 발심을 해 버리면 참선처럼 쉬운 게 없다는 말씀도 해주셨다.

그런 참선 수행을 바탕으로 경전 강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참선도 지도하시는데 능엄경 25원통에 있는 육근을 제재하고 육진을 제재하고 육식을 제재하는 방법을 내용으로 하여 눈을 집중하는 방법, 귀를 집중하는 방법 이렇게 오관五官을 집중하고 그리고 나서 의식집중을 하고 의식집중에서부터 화두를 들기 시작하게 한다 하셨다.

“화두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는 일념 됐느냐 안 됐느냐거든요. 일념이 되고 난 뒤에는 깊어져야 되거든. 근데 이 깊어지는 기간이 길수록 공부에 이제 야물져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기간이 계속 한없이 길어지고 그렇게 할 줄 알면 그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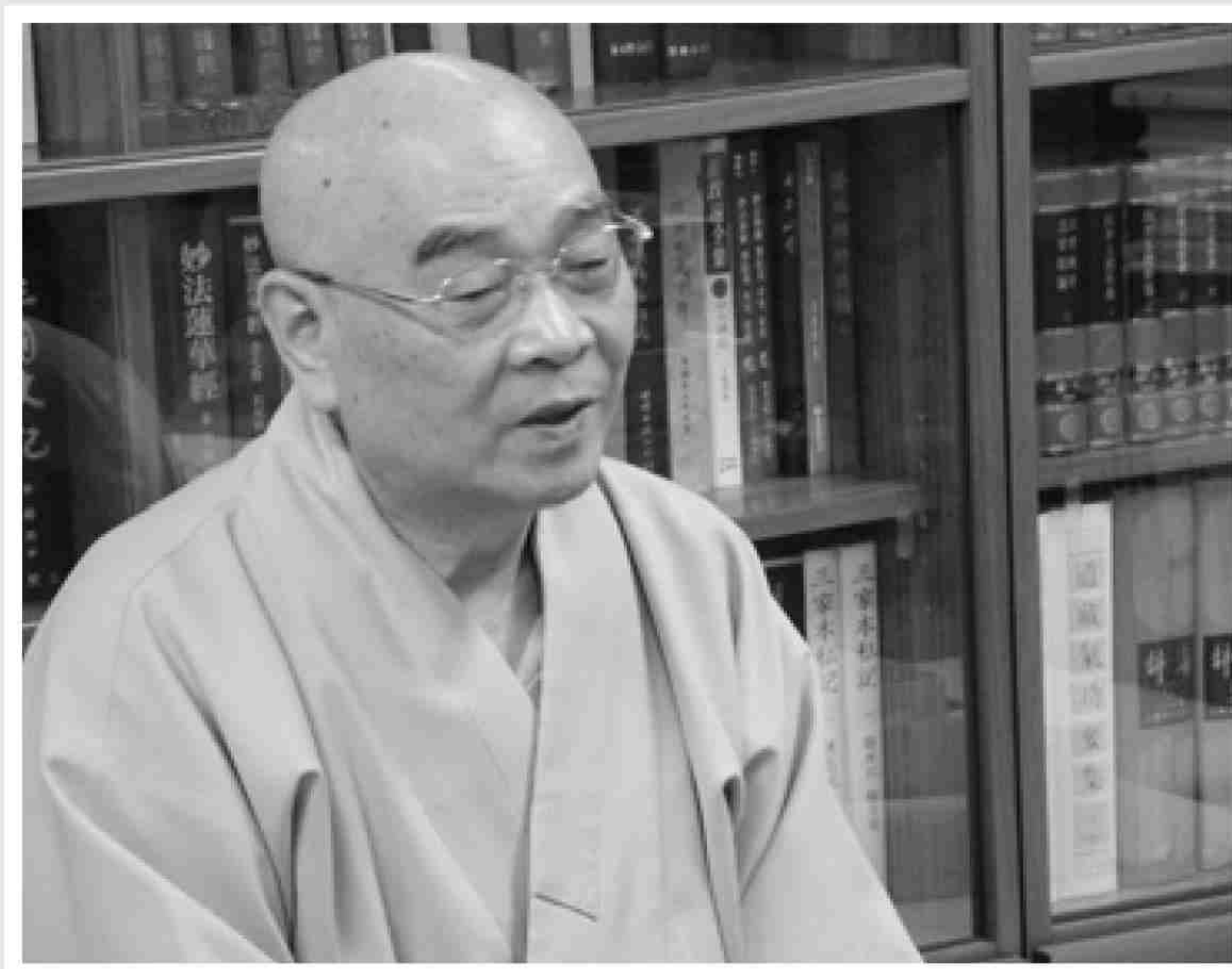
눈 하나만 집중할 줄 알아도 나중에 마음 집중하는 거 눈 하나 집중하고
귀 하나 집중되면 마음 집중하는 건 더 쉬워 하나만 할 줄 알면.

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화두를 들지만은 어제 것하고 오늘 것하고는 천지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나날이 날마다 한자리이면서 날마다 다른 자리 이게 인제 살아있는 참선이에요.”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들은 사마타와 위빠사나로 수행했고 달마스님은 9년을 벽만 바라보셨고 나중에 간화선이 나와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 다른 것입니까? 공부를 안 했다는 표시가 나는 줄 알면서도 알 듯 말 듯 하여 항상 궁금했던 문제였던 터라 연관된 내용인 듯 해 한번 여쭙어 보았다.

“오관을 응시하는 것이 초단계이고 오관응시에 서 그 다음에는 의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의식으로 갔을 때는 일념하는 거 일념일 경우에는 뭐냐. 꼭 화두만이 공부가 아니고 원을 24시간 안 놓쳐도 화두란 말이야. 일상생활의 문제를 일념으로 해서 안 놓쳐도 화두가 돼. 근데 이제 처음에 공부하는 방법 가장 기본은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법 두 가지뿐인데 어느 쪽에 가도 선나禪那가 따라다니고 선나를 놓칠 수는 없어요. 남방불교에서는 이 두 가지 수행을 따로따로 하거든. 한 수도원에서는 사마타

만 하고 어떤 곳은 위빠사나만 하고 그래. 이것이 중국으로 오면서 병행하고 됐다고. 그래서 조사선 하면 정혜쌍수가 조사선이니까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병행하는 것이 조사선이다 근데 두 개를 병행하는 것이 옳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진일보했다 그런단 말이야 중국의 참선 수행법이 남방의 수행법보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단 말이야. 이 둘을 병행을 하면서도 사마타와 위빠사나는 놔둬 버리고 간화라고 하는 말만 남아 있다고 지금 우리나라 수행법에. 그러니까 간화선을 한다는데 대해서 뭐냐 그러면 이거 두 개가 필요없고 간화선이 따로 있는 걸로 착각하기가 딱 쉽단 말이야.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라. 응주벽관을 할 때에 응주벽관 따로 화두 따로 이런 참선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라. 응주벽관하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화두란 말이야. 그래야지. 응주벽관 따로 화두 따로 이런다 그러면 그 공부가 언제 이뤄지겠어요. 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사이에서 화두를 놓치지 않고 화두를 끌어내서 유지해 주는 것이 혜란 말이야. 혜가 없으면 화두를 잡을 수가 없단 말이야. 바로 간화선 속에 화두를 가지고 유지해서 적정하게 잡을 수 있는 이 혜가 이미 끝나 있다고 혜가 들어



가 있던 말이지. 그럴라면 그러기 전에 뭐가 먼저 끝나 있어야 되느냐. 계정혜 삼학 중에 계가 가장 근본이 된다. 어디 가서 죽도록 싸워가지고 와서 이 뿔고 한다고 이뿔고가 되나. 그 다음이 멈춰 있어야 한다. 여자 생각이 멈추지 않는데 무슨 참선이 되겠어요. 멈추는 데는 멈추는 기술이 또 혜란 말이야. 똑같은 것을 멈춰도 원력으로서 멈추는 방법, 수많은 멈추는 방법이 자기만의 방법이 나와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이 사마타만 가지고 한다면 그 수행이 안 되고 위빠사나 위빠사나 하지만 멈춰지지 않은 위빠사나는 존재하지도 않고 이 둘을 떠난 간화선은 더욱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닥이 놔줘야 선방에서 헛세월을 안 보낸다. 눈 하나만 집중할 줄 알아도 나중에 마음 집중하는 거 눈 하나 집중하고 귀 하나 집중되면 마음 집중하는 건 더 쉬워 하나만 할 줄 알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우스꽝스러

운 왜 그런 것을 시키냐 화두 참선이 제일이지 이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 멈출 줄 알면 다 돼 버리는데. 제일 쉬운 것도 못하는데 안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렇게 이해가 돼야 참선에 가닥이 잡힌다.”

요즘 스님들이 남방이나 티베트로 많이 가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대단한 것을 전수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놓쳐 버린 탓이 크다 하셨다. 일례로 남방은 정혜를 병행하지 않는다 했는데 순수하게 원이 없고 의단이

없이 멈춰지면 그것은 무기가 되고 묵조선이 되어 중국의 선사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묵조선을 하면서 인제 가닥 난다고 한다고 보통 큰 일이 아니라 하셨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자신이 흥미가 있는 쪽에서,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행정하고 싶은 사람은 행정을 이루라고 하시며 80%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불교가 스님으로서 문화재 전문위원이 한 분도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 하고 계셨다. 또한 강원과 선방이 타성에 젖어 제도적으로 많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강원은 그냥 다녀야 된다고 하니까 다니고 있고 공부에 전념해야 할 학인 스님들은 다른 많은 것에 시간을 뺏기고 있다고 하셨다. 일정량의 자비량(自備糧)을 내어 자생력을 키워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다.

“24시간 공부여. 이럴 때에 사람이 나지 예 틀리지 않죠. 정말로 인물이 나게끔 공부가 정말로 잘 되게끔 제도制度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방도 해제비를 줄이고 그 돈으로 선지식 법회를 자주 열어 줘야 한다고 하셨다. “상단 법문을 날마다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날마다 신심촉발이요 날마다. 까딱하면 방일, 방심하기 쉽고 타성에 젖기 쉽고 무기에 들기 쉬운 데가 선방이거든. 근데 이걸 깰라 그러면 날마다 축구를 해줘야 돼요. 일깨워 준 단 말이야. 그리고 납월 8일 용맹정진하게 되면 장군 죽비 치지 말고 내버려둬요. 그 때에 일주일동안 내버려뒀는데 한 번도 안 조는 사람 있으면 전 대중이 그 사람한테 절 해줘야 돼요. 근데 죽비가 왜 금물이나 정에 들리는 사람 다 깨어버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잠자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여. 그 사람은 탈락이요. 향상된 사람을 발굴해 내는 것이 선불장 아니요. 그렇게 지나가면요 참선경지가 엄청난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수없이 나와요.”

후학들에게 한 말씀 부탁하니 특별히 후학들에게 해 줄 말은 없고 당신이 죽을 때까지 공부하다 죽고 죽을 때까지 공부 가르치다 죽고 싶다고 하시며 안 할 것 ‘나는 뒷만은 안 하겠다. 뒷만은 안 하겠다’를 정하고 사는 것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

을 남기셨다. “그거 하나만 정해져서 지켜도요. 다른 사람보다 몇 배 앞서요.”

사람들은 모두 오욕락을 영위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 그러나 그런 행복 속에서도 언뜻언뜻 자신을 돌아보며 허탈함을 느끼게 된다. 그 허탈함을 한 때의 우울함으로 생각하고 지나치지만 그것이야말로 바로 법에 대한 배고픔이 아닌가 싶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내색하진 않지만 법에 몹시 굶주려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선지식은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한다.

스님이 공부 공부 하시는 것도 모두의 그런 안락을 위해서일 것이다. 지금 그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보살행이라 생각했다. 그것도 물론 보살행이지만 법을 보시하는 것이 제일 큰 보시라는 부처님 말씀을 이제야 비로소 수궁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하시는 스님을 보며 스님도 이제 그런 누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님의 일정은 판 데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올 수 없을 정도로 연중무휴 뽐뽐하게 짜여 있는데 공식 시간표에 없는 날이 오히려 일정이 더 겹쳐져 바쁘다고 하신다. 거기서 우리 불교의 미래를 보았다. 좋은 스승을 얼마나 못살게 구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定慧社

덧없는 생각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덧없는 생각들을 마땅히 끊어버려야 한다.

그리하면 마음이 넉넉하고 안락하리라.

무엇이 덧없는 생각인가?

육신에 매달리는 것이 덧없는 것이다.

좋고 나쁨의 느낌에 매달리는 것이 덧없는 일이다.

무엇을 보고 느낀 자기의 생각들이 덧없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에 매달리는 것이 덧없는 것이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물을 분별하는 것이 덧없는 일이다.”

잡아함경 제 7;173경:〈2-45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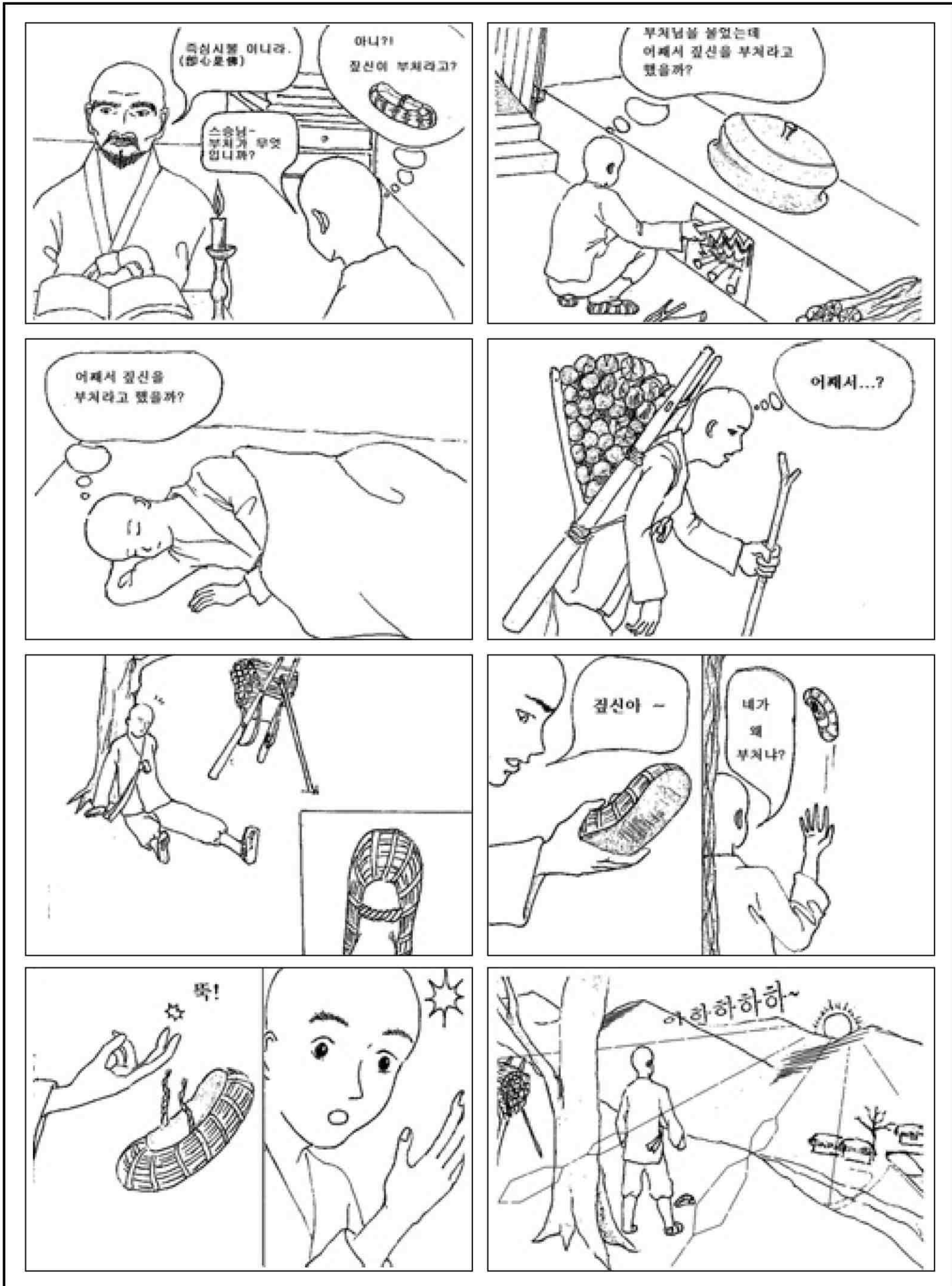
인생법문 - 추담스님

글·그림 종안宗眼 | 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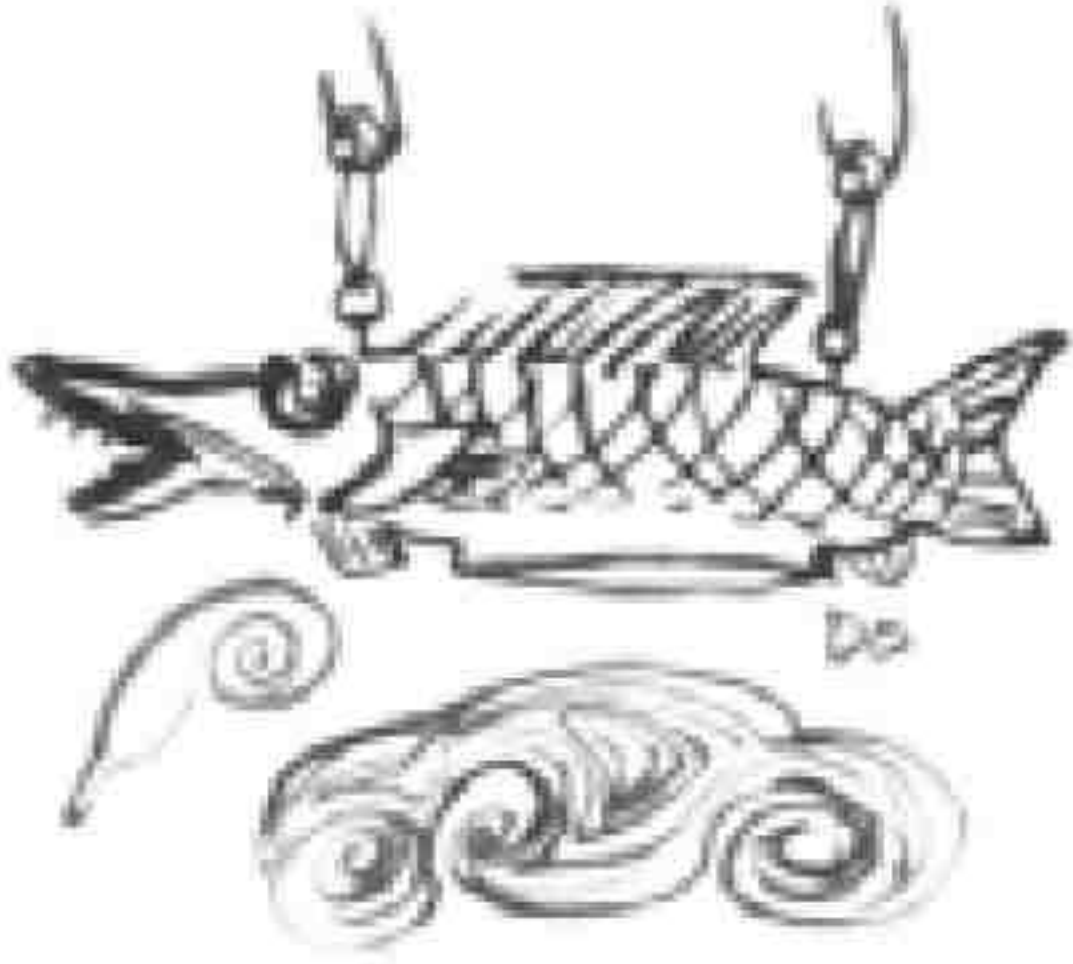
대신심 大信心

글·그림 견해健海 | 치문



사물 四物

법보法寶 | 치문



보통 큰 절에서는 법당에서 새벽예불과 저녁예불을 시작하기 전에 법당 밖의 누각에서 사물이라고 일컫는 법고, 대중, 목어, 운판을 친다. 이 사물을 치는 이유는 단순히 예불을 장엄하기 위한 것 이상의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대중을 치는 이유는 고통 속에서 해매는 일체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이고 법고를 치는 이유는 이 사바세계의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제도하기

위함이고, 목어를 치는 이유는 모든 수중 생명들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고, 운판은 허공 중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짐승들을 제도하기 위해 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교의 예불은 단순히 매일 반복되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 갖가지 악습을 참회하고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요,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들을 찬탄하며 우리가 그분들과 같이 수행을 열심히 하여 삼계의 육도를 윤회하며 고통 속에서 해매는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자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불을 할 때 절에 있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온 마음을 집중하여 지극정성으로 불보살님께 예를 올려야 하는 것이다.

사실 나도 송광사에 와서 사물을 다루는 법을 배워서 매일 종고루에 올라가서 사물을 치고 있는데 정말 이 사물을 잘 친다는 것이 상상 이외로 힘든 것 같다. 특히 사물 중에 법고와 목어는 웬만한 노력 없이는 잘 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법고는 치문반에 들어오면서 거의 8, 9개월 동안을 하루가 멀다 하고 연습하며 치고 있는데 아직도 실력이 서투르니 정말 언제쯤 윗반스님들처럼 멋있게 법고를 칠 수 있을지 답답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 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뽐내기 위해서 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치는 이 사물의 힘찬 울림이 삼계의 고통 속에서 해매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할 수만 있다면 그 이상 더 큰 의미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이 깊은 뜻을 마음에 품고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힘차게 사물을 칠 것이다. 定慧社

출가 出家

시건是見 | 치문

출가하기 위하여 버스를 타고 송광사에 도착했을 때 밤 8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겨울이고 추운 날씨에 날은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길 옆 가게에서 송광사 가는 길을 물어보고 다시 매표소에 도착해 나이 든 처사님께 출가하려고 한다 하니 원주실에 전화해 주고서, 산으로 난 길을 곧장 올라가라고 했다. 그 때 달도 없어서 칠흑 같은 길을 더듬다시피 해서

한참을 홀로 걸어가니 냇가 위로 불빛 몇 개 떠 있는 것이 내가 처음 본 송광사의 모습이였다.

그렇게 겨우겨우 원주실에 도착해, 입고 온 옷을 모두 벗고 시자행자님이 주는 옷을 갈아입은 것이 출가생활의 시작이 되었다. 행자가 되고는 생활공간이 행자실과 공양간, 해우소, 대웅전으로 제한되었다.

그래서 행자가 된 후 한동안은 자고 일어나서 보이는 조그만 공간만이 내가 아는 송광사의 전부였다.

그 뒤로 수계하기 위해 송광사를 벗어나기 전까지 별로 더 알아진 것도 없는 것 같다.

수계하고 난 뒤 강원에 입방하고 나서 행자 때보단 넓어지긴 했지만 일 년차인 나에게 송광사에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범위는 그다지 넓어지진 않았다. 그래도 지금은 일주일과 보름의 방학이 두 번씩 있다.

그래서 송광사를 벗어날 때는 괜스레 기분이 좋아진다. 아마도 짝 짜인 생활과 윗반스님들의 눈초리로 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어서인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밖에 나가봐야 스님으로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없고, 웬지 사람 많은 곳을 다닌다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짧은 방학을 마치고 송광사에 들어오면 매일 징그럽게 보는 도반 스님들과 윗반 스님들 지대방이 왜 그렇게 편안한 옷처럼 느껴지는지... 비록 하루를 못 넘기지만.

나도 조금은 큰방 장관 때가 묻은 것일까?

치문반의 동안거가 흘러가고 있다. 定慧社





세계불교 중심지 대만을 다녀와서...

편집부



대만은 경상도 크기의 국토에 약 2200만 명이 사는 작은 나라다. 그러나 대만불교는 티베트불교와 더불어 세계불교를 이끄는 중심에 서있다. 세계 전역에서 대만불교계가 설립한 대학이나 봉사단체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의 활동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눈부신 까닭이다. 특히 네덜란드와 일본으로부터 수백 년간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이 정법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불자라는 것도 이들의 특색이다.

송광사 강원의 스님 여덟 분이 2007년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체험한 대만 견학은 신심과 원력으로 꽃피워낸 대만불교의 힘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여기에서는 견학의 목표였던 대만불교의 교육을 중심으로 불교의 현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다. - 편집자주

불광산사



불과 60년 전만 해도 대만 내에서 불교의 위상은 그리 높지 못했다. 유교·도교 등 전통신앙이 강했고, 불교도 기복적인 신앙형태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계에 혁신을 몰고 온 것이 불광산사의 성운星雲, 중대선사의 유각惟覺, 자제공덕회의 증엄證嚴, 법고산사의 성엄聖嚴법사 등 큰스님들의 등장이었다. 또 '종교는 아편'이라 생각하는 공산당을 피해 본토의 수많은 납자들이 대만으로 몰려든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 특히 성운스님은 대

만불교의 총본산이라 여겨지는 불광산사를 통해 대만 종교계에 혁신을 일으킨 인물이다.

1922년 중국 지양쑤성[江蘇省]에서 태어나 12세에 출가한 성운스님은 1949년 대만으로 건너온 뒤, 인순印順스님의 인간불교 이상을 이어 불교의 생활화에 진력했다. 1967년 대나무가 우거지고 가시덤불이 무성했던 고웅현 대수향에 작은 법당 건물 하나로 불광산을 창건하였다. 하지만 현재 3000여 명의 대중이 머무르고 100만 명이 신도로 등록될 정도로 성장한 불광산사는 30만평의 대지 위에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각종 전각 21개가 들어서 있다. 뿐만 아니라 대만 내 70여 곳의 사찰과 라디오, 케이블 TV, 신문사를 운영하고 세계 곳곳에 200여 곳의 사찰을 관할하며 불교를 전하고 있다. 그 가운데 불광산사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불광대장경과 불광대사전은 오늘날 수많은 불자들은 물론 불교 학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역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불과 40여 년 만에 일구어낸 불광산사. 이 배경에는 성운스님의 신심과 원력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학인스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성운스님의 원력은 첫째로 교육을 통한 인재의 양성이고, 문화사업을 통한 불교의 전파, 자선사업을 통한 사회복지, 법회활동을 통한 마음의 정화인데 이를 불광산의 중지로 삼아 하나씩 실천해 나아갔던 것이다.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불광산은 개산 이래로 줄곧 교육의 발전방향에 최고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승가교육부분으로 현재 대만·홍콩·말레이시아·인도·호주·남아프리카·미국·브라질 등지에 총 16곳의 불학원이 분포되어 있다. 두 번째는 사회교육부분으로 미국의 서래대학·불광대학·남화대학·금광명신도대학·보문중고등학교·남투군두초중학교·인문초등학교와



▲ 불학원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일행의 모습

다수의 유치원을 설립하셨다. 세 번째는 신도 교육 부분으로 성인 교육의 예를 보면 신도·직원·봉사자 강습회·단기출가·오계·보살계법회·TV 강좌·천안(인터넷) 등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근기에 맞게 각기 다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불광산사에는 남녀 불학원이 따로 있으며, 출제가 구분 없이 교육을 하고 있다. 18세부터 35세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녀라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어 지금 200여 명 가운데 신입생은 99%가 재가불자이나 공부하는 과정에서 80~90%가 출가해 불광산사 출가자의 95%에 달한다고 한다. 출가자는 2년 과정의 기초, 입문과정을 마친 뒤 경전과 성운대사의 어록 등을 배우는 전문 과정을 거쳐 졸업하며 출가자는 반드시 논문시험을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어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한 불광산사는 1학년 2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10단계의 등급으로 나눠 외국어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키고 있다. 이는 해외포교를 위한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호주나 미국, 인도, 홍콩,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총림학원을 건립하고 있는 불광산사는 해당지역의 언어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4년 과정을 마친 출제가자가 심화된 학습을 하고자 할 때는 대만으로 들어와 공부를 더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원 과정으로 2년 과정의 국제 불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교육은 모두 외국어(영어 혹은 일본어)로 진행하고 있다. 전체적인 학제는 2년제와 4년제로 나뉘어 있으며, 2년의 기본과정을 마친 사람은 3학년으로 진학해 공부를 심화할 수 있다. 2년과 4년에 상관없이 졸업 후 진로는 불광산사가 보장해 줌으로써 학생들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한다.



▲ 불광산사 주지 심배스님(가운데)과 함께

중대선사



대만 불교계에 또 다른 혁신을 몰고 온 곳은 유각惟覺큰스님이 창건하신 중대선사中台禪寺이다. 중대선사의 모형은 앞면은 산 모형, 옆면은 좌선하는 수행자 모형이며 높이는 총 37층의 140m로 보는 사람을 압도하였다. 건물의 내부로 들어서니 성물聖物과 장엄물莊嚴物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 무려 102톤이나 되는 흑 화강암의 거대한 사천왕이 건물의 기둥으로 밖에 쓰이지 않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또한 각 층마다 주제를 설정하여 깨달음

에 이르는 길을 상징하고 있는데 1층은 회색을 주제로 서가모니불을 모셔 중생세계를 표현하고, 5층은 황금빛을 주제로 수행과정을 상징하는 노사나불을, 9층의 대광명전에는 차마 발 디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깨끗한 흰 대리석으로 반짝거리며 우리의 맑고 청정한 법신을 상징하고 있었다.

이렇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신 유각스님께서서는 중국 사천성四川省 영산현營山縣에서 출생하여 소년 시절에 유가교육을 받아 4서5경, 제자백가를 읽어 학문적인 소양이 풍부했다. 게다가 불교경전을 열독하던데, 어느 날 의연히 출가의 뜻을 품어 1963년, 30세 되던 해 스님은 대만 기륭 시방대각선사十方大覺禪寺에서 당시 중국의 최고 고승인 허운虛雲 대사의 법맥을 이은, 영원靈源노화상을 은사로 출가하여 법명 지안知安, 자호 유각惟覺을 받았다. 이어 64년 시방대각선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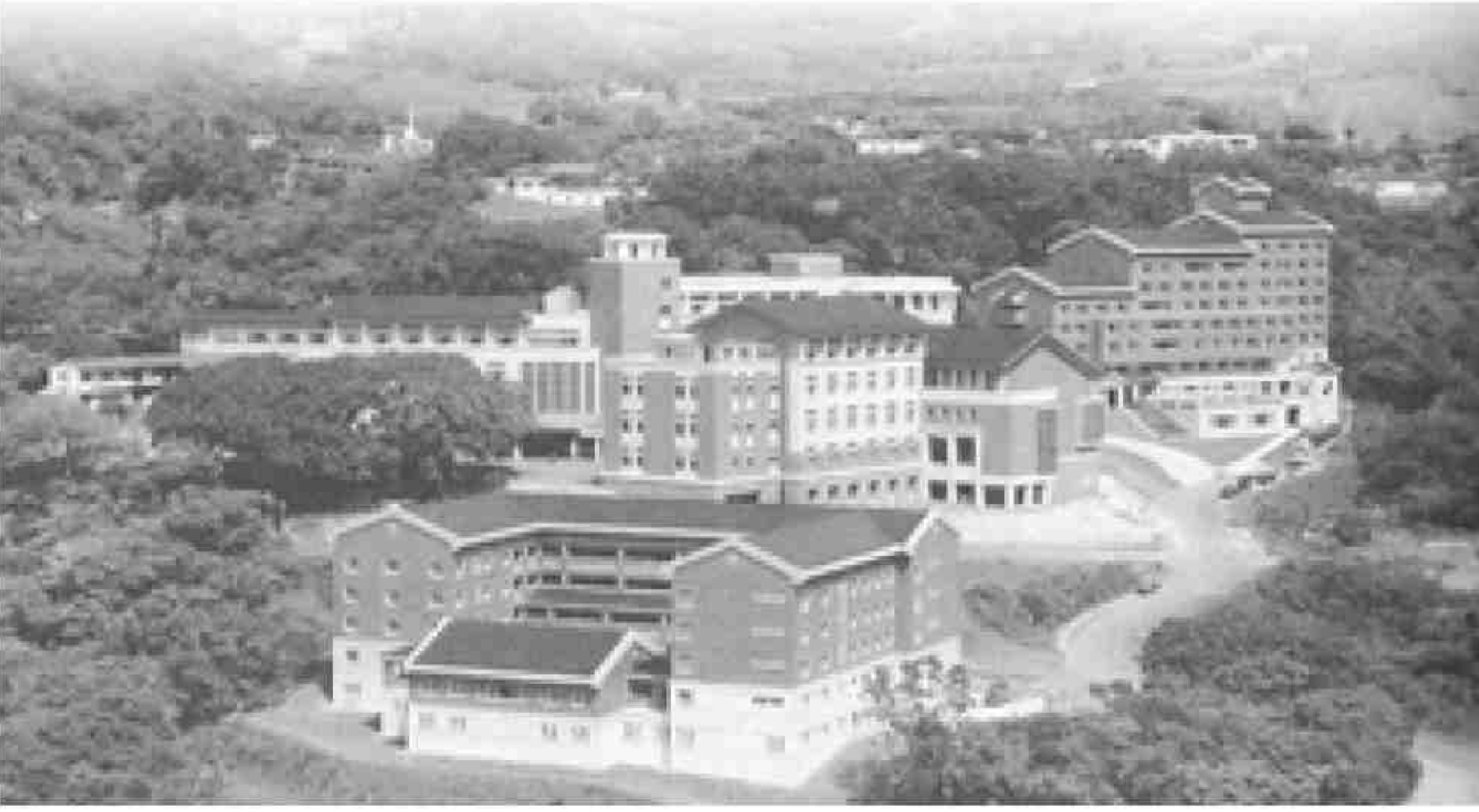
철저한 정진으로 수년 만에 염불법의 최고 경계인 실상염불實相念佛에 계합하고, '삼천대천세계가 내한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유심정토唯心淨土를 체증體證했다. 선정일여禪淨一如의 도리를 요달한 후 대만 북부로 들어와서 20년간 무문관無門關수행을 하시고 나서 1987년에 대북현臺北縣 만리향萬里鄉에 영천사靈泉寺를 세워 대중교화를 펼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스님에게 감화받은 대중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공간이 협소해져 중대선사 건립을 계획했다고 한다. 이에 스님의 영감과 현대 과학 기술을 결합시켜 불교사상이 집약 내포된 현대식 건축물을 3여 년에 걸쳐 설계하였으며 그 후 7년간의 건축 과정을 걸쳐 2001년에 낙성식을 가졌고, 현재 세계 최대 선종 도량으로 로마의 바티칸궁, 티벳의 포탈라 궁과 더불어 세계 3대 종교 건축물로 손꼽힌다고 한다. 또 몇 해 전에 방학 중 자원 봉사를 왔던 대만 일류대학 100여 명의 학생이 귀가하지 않고 동시에 출가를 해서 대만 사회의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하니 안팎이 다 놀라운 곳이다.

중대선사가 역점을 두는 방향은 학술, 과학, 예술, 교육, 불법의 생활화로 5방면 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출가자 교육, 일반 학교 교육, 사회 대중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절 아래 마을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었고 고등학교도 설립 중에 있었다. 그리고 경내에는 고급부 3년, 대학부 2년 과정의 학원부와 석사과정을 취득할 수 있는 3년 과정의 연구소가 남녀로 분리되어 교육하고 있다. 연구소는 2년 동안 불교학에 대한 연구를 하며 1년 동안은 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이 통과되면 석사학위를 받는다고 한다.

중대선사의 교육시설 또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는데 강의실·도서관·세미나실·숙소 등이 우리나라 일류 대학에 못지 않았으며 현재 약 300여 명의 학생이 수학하고 있다고 했다.

임제종 계통의 선불교를 중심으로 교세를 펴고 있는 중대선사는 미국에 7곳의 선 센터를 개설하고, 홍콩, 방콕, 호주 등 전 세계에 100여 곳의 선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900여 명이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초·중등학교도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교육이 구도와 전법, 교화에 있어 가장 핵심 과정인 동시에 결과이며 미래를 담보하는 것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법고산사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근처인 금산향金山 鄉에 위치하고 있는 성엄聖嚴스님의 법고산사는 사찰 자체가 대학캠퍼스처럼 꾸며져 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역시 교육을 제일 우선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불법이 이처럼 좋지만 아는 사람은 너무 적고, 오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다」 이러한 단순한 신념 때문에 성엄스님은 법고산사를

창건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을 ‘풍월 속의 행각승’이라 비유하고 일찍이 ‘400년 이래 대만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갖춘 50명 인사’ 가운데 한 분이신 성엄스님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진실로 온갖 시련과 전환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법사님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았다. 랑산狼山에서 출가한 후 경참經懺과 군대생활을 겪은 후 다시 출가를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두 번의 출가로 조동종과 임제종 두 종의 법맥을 받아 잇고 있다. 그렇게 두 종을 쌍수하여서인지 마흔의 나이에 불교의 위치와 승가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본유학을 결심했다. 또 박사학위를 얻고 나서 곧 미국, 대만을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불법을 널리 드날렸다. 뿐만 아니라 법사님은 항상 수첩과 필기구를 가지고 다니며 기록을 하셨는데 그렇게 모여진 글들은 지금까지 이미 100권이 넘는 서적들을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학문과 수양을 더욱 깊고 넓히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중화불학연구소」, 「법고대학」을 창립해 고급 연구 인재를 양성하는 외에 여러차례 과학, 예술, 문화 등 영역의 뛰어난 인사들과 더 나아가서 다른 종파 다른 종교와의 교류도 추진했다.

법고산사는 중화불학연구소와 법고산 승가대학 안에 불학원, 승려양성반, 선학원이 개원돼 있으며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석·박사 과정은 법고불교학연수학원, 그리고 대만 교육부로부터 정규대학으로 허가 신청을 해 놓은 법고산인문사회대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2001년에 개설된 불학원은 4년제이며, 출재가자 모두에게 입학할 허용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중 2003년부터 개설된 2년 과정의 승려양성반도 있는데 출가를 전제로 한 재가자들에게 입학할 허가하고 있다. 그래서 1학년만 재가자가 있고, 2학년이 되면 모두가 출가자로 나서 법고산사의 종지종풍을 따르는 스님이 된다. 또한 6년 과정의 선학원이 개설되어 있어 심화된 선 수행 공부를 하는데 출재가자 모두가 공부할 수 있다.



▲ 법고산사 주지스님과 함께

자제공덕회



▲ 함장한 자세로 영상에 빠져있는 많은 이들

일행은 타이베이를 지나 동쪽의 화롄花連 시내 한 가운데에 있는 자제공덕회의 병원을 찾았다. 병원을 들어서면 순간 많은 이들이 벽 쪽의 큰 화면을 통해 한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우리를 맞이해주던 제평濟平 거사님도 병원 소개를 하다 말고 영상 속으로 빠져들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 감동적인 다큐멘터리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환자 가족들이 다같이 모여 다과를 하며 시청할 수 있도록 방영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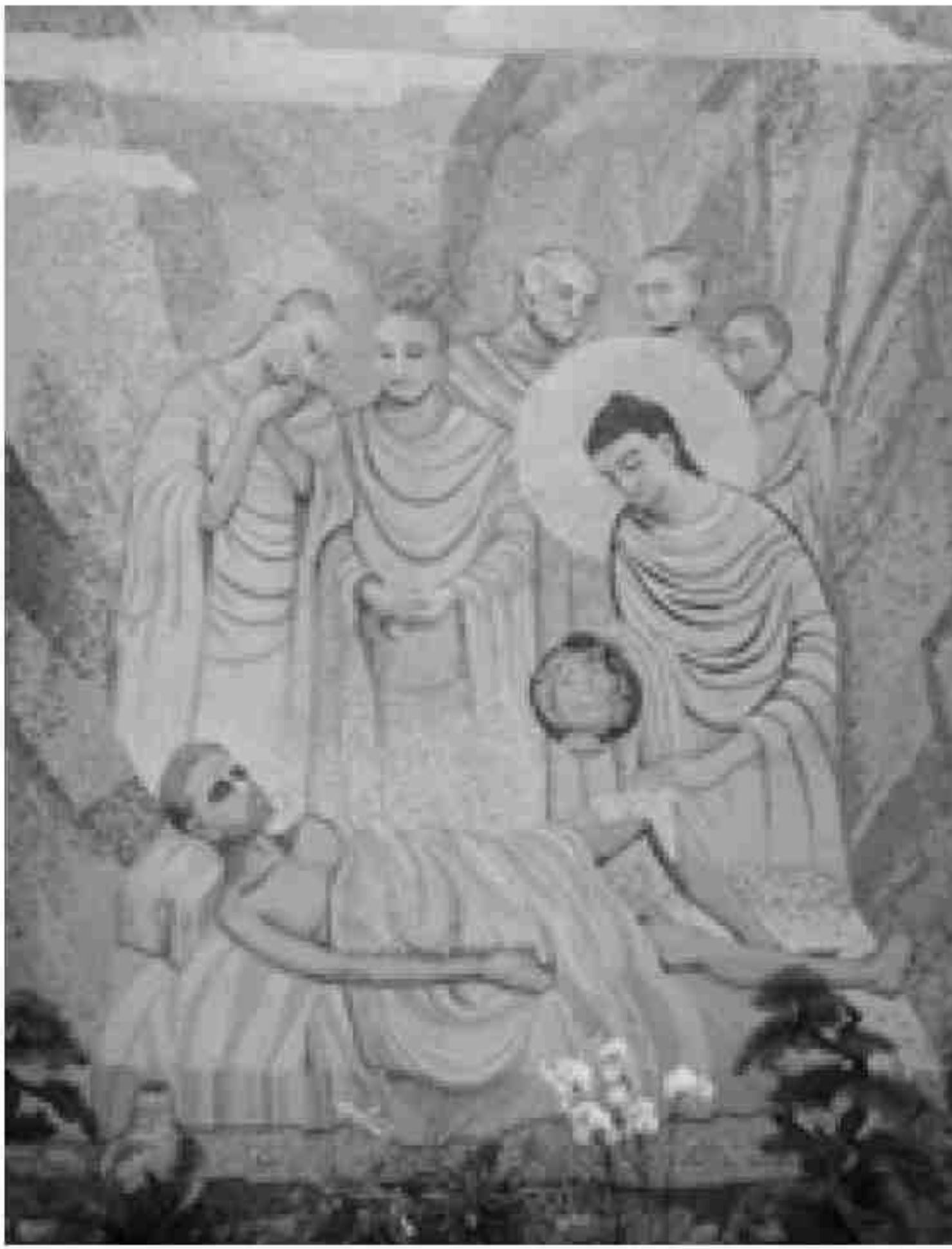
대만 내에서도 최고의 의료시설로 손꼽히는 이곳. 화롄 불교병원을 비롯한 6개의 병원, 대만 내의 가장 유력한 방송국인 '대애大愛', 14만 명의 자제위원과 500만 명의 회원을 갖춘 봉사단과 대학, 쓰나미가 남아시아를 강타했을 때 가장 먼저 의약품과 쌀자루 짚어진 채 달려가고 2001년 미국 9.11 테러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해 구호활동을 펼쳤던 봉사단. 대만의 긍지라고도 일컬어지는 범세계적인 자제공덕회의 출발은 41년 전 한 젊은 비구니 스님에 의해 시작됐다.

대만 최고의 고승 중 한 분으로 일컬어지는 증엄證嚴 법사. 그가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은 1962년 초였다. 도시에서 극장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처음 이곳에 왔다. 홀로 남은 어머니의 극렬한 반대로 머리도 깎지 못한 채 그는 이곳에 머물며 하루 한 끼 식사와 2시간 수면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경전 독송과 참선에 매달렸다. 그렇게 1년, 딸의 굳은 결심에 어머니는 결국 출가를 허락했고 증엄스님은 인순스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평생 수행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몇 해 뒤인 1966년, 그의 금강석 같은 결심을 바꿔놓은 사건이 발생했다. 만삭의 한 원주민 여인이 난산으로 사경을 헤매던 중 병원에 실려 왔지만 보증금 몇 천원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을 목격한 것이다. 순간 스님은 수행이란 홀로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대중 속에서 함께 하는 삶이야말로 참다운 대승의 수행법임을 눈물 속에서 자각했다.

이후 스님은 30명의 주부들과 함께 자제공덕회를 만들어 대나무 저금통에 매일 5원씩 보시하는 운동을 펼쳐나갔다. 그리고 모여진 돈은 전액 빈민구제를 위해 사용했다. 자제공덕회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동참자가 급증했고 1972년에는 빈민의료검진 시설을 세웠던 것이 오늘날 거대한 불교자제종합병원의 모태가 됐다.

자제공덕회의 활동은 빈민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에서 그치지 않고 자선, 교육, 문화, 국제구호, 골수기증, 환경보전, 지역사회개발 등으로 확대시켜나가, 현재 자제공덕회의 활동에 언제라도 참여할 수 있는 이가 14만 명에 이르고 있다.



▲ 홀의 벽면에 그려져 있는 부처님 치유의 손길



▲ 사진 중앙에 북한 주민들이 짠 자수가 보인다

병원의 운영기금은 놀랍게도 대부분 기부금에 의해 운영된다. 투명한 재정운영과 함께 단 돈 1000원이 라도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는 철저함은 자제공덕회에 대한 대중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특히 대만 내 5만 명의 후원자들이 매일 폐품을 모은 돈으로 병원에 보시하는 돈도 연간 50억이 넘는다고 한다.

또 병원의 시설은 일행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지난 86년 개원한 종합병원과 최근 개원한 응급의료 병동은 웬만한 한국의 대학병원 규모를 훨씬 능가했고 계단은 거동이 힘든 분들을 위해 굉장히 낮고 길게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나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자제공덕회 회원들이 환한 얼굴로 접수대, 응급실, 중환자 실, 병실, 안내, 세탁실, 식당 등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병원 옆에는 족히 50미터는 뒹직한 웅장한 정사당이 자리잡고 있었다. 교육, 법회, 문화공연 등이 이뤄 지는 대법당과 자제공덕회의 활동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홍보관도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연수장에 걸려있던 북한 주민들이 한 땀 한 땀 자수를 놓아 부처님이 지구를 어루 만지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 했다는 초대형 걸개자수였다.

1999년 겨울 북한에서의 구호활동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이 보낸 것이었다. 국가와 이념을 넘어선 자제인들의 불교정신, 그 걸개자수는 숭고한 이들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복엄불학원

대만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꽤나 큰 도시에 속하는 신죽시新竹市에 있는 복엄불학원. 송광사 출신스 님(대경, 원각)이 두 분이나 머물고 있는 이곳은 대만불교의 근원지라고 칭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 순대사께서 살아생전에 머무시던 곳이기 때문이다. 인순대사는 1906년 중국 절강성에서 태어나 청소년 시 기에 불경을 읽고 발심하여 25살 되던 해에 청념淸念노화상을 의지하여 출가를 했다. 보타사와 대각정사

등 여러 곳에서 수행정진하시다가 중국 본토가 공산화되자 1953년 48세에 대만으로 넘어와 여기 신죽시에 복엄정사를 건립하여 머무셨다. 그 후 세수 100세로 2005년 6월 4일 대만 동



▲ 인순법사 조형물



▲ 원적 후에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인순법사의 집무실

부의 화련시 자제공덕회 정사정사에서 입적하시기까지 주창하신 사상은 ‘불교는 세간世間에 있으니 바로 이 자리에서 행복을 추구하라’는 <인간불교人間佛敎> 사상. 그 사상은 초기 대승 불교에 속하는 태허太虛 스님의 <인생불교人生佛敎>를 발전시킨 것으로써 대만불교에 중심에 선 불광산사의 성운대사, 자제공덕회의 증엄대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대만의 불자들을 품에 안기에 충분했다. 그러한 따뜻한 사상은 여기 복엄불학원에서 일행을 안내해주고 대담을 해주신 학장스님을 비롯하여 강사 및 소임자 스님들에게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이곳은 다른 불학원과 다르게 남자들만 122명이나 재학 중에 있는데 대만 내의 비구와 비구니 비율이 2:8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역시 대만에서 제일 큰 남자 불학원이라는 것을 가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많은 스님들과 대중생활을 함으로써 ‘계’를 다스리고, 참선 경험이 깊은 스님을 모셔서 참선시간을 가짐으로 ‘정’을 돈독하게하며 경전 연구를 함으로 ‘혜’를 기르는 것을 교육이념으로 대학부 2년 과정, 4년 과정과 연구소 3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대학부는 출가인과 재가인이 함께하고 연구소는 비구 스님들만이 수학할 수 있다.

우리 송광사 강원의 학인 일행은 8박 9일간 불광산사의 여러 말사에서 숙박을 하며 위의 사찰뿐만 아니라 영암산사, 정각정사, 불타교육기금회 등 여러 곳을 들렀다. 대만에서는 들르는 곳마다 지계염불持戒念佛을 수지하여 생활하기에 한결같이 염불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덕분에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입에서 나무아미타불이 흘러나온다. 뿐만 아니라 대만불교의 교육현실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체계가 확실하게 잡혀있어 현대불교의 지표라고도 한다.

앞으로 대만으로 유학가실 스님들을 위해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라며 전체 일정을 안내해 주신 불광산사의 의은衣恩스님과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던 대만스님들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 번 두 손 모아 합장 드린다. 나무아미타불. 定慧社

아름다운 도반 수석정

혜철惠哲 | 치문

단아한 정자 아래 작은 호수가에 자리 잡은 법고 연습장에서 한참동안 법고 연습을 했다. “쿵따따따 쿵따따따 쿵따쿵따 쿵따따따...” 얼마나 했을까. 한 시간은 훨씬 넘은 것 같은데 한 시간 반 정도? 뭐, 이 정도면 오늘은 충분한 것 같다. 하지만 오늘은 아쉽고 섭섭한 기분이다. 왜냐하면, 오늘 이후로 거의 치문반 마칠 때까지는 법고 연습도 하지 못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나는 무심코 하늘을 움켜쥐고 짝금 맛만 보여주는 키 큰 나무들과 뒤로는 포근하게 감싸주듯 가파르게 솟아 오른 산, 옆으로는 호수, 정자와 건너편에 작은 적벽강 같은 멋진 절벽을 빙 둘러 보았다. 이윽고 “반드시 법고 연습하러 다시 올 터이니 그때까지 잘 있어라.”고 낮은 소리로 읊조렸다.

다음날 새벽, 좌차에 따라 내 차례가 돌아와 이틀간의 도량석을 도는 날이다. 내 머리보다 큰 목탁에 달린 끈을 목에 걸고 다시 왼손으로 굳게 잡고 오른손에 채를 들고 “딱, 딱, 딱.” 목탁을 치면서 “정~구업 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천수경을 외우며, 한 걸음 걷는데 오늘따라 첫 음부터 좀 이상하다 싶더니 갈수록 기기묘묘하게 흘러갔다. 운곡 따로 박자 따로 목소리까지 내가 들어도 도저히 못 들어 줄 것 같았다. 운곡은 어느 나라 째인지 알 수가 없고, 박자는 느렸다 빨랐다 치려다 말려다 뜬금없이 급하게 치는 목탁소리도 제멋대로인데, 목소리까지 돼지가 지르는 괴성 같았다. 이래가지고 온 도량을 한 바퀴 돌았으니 온 사중이 발각 뒤집히지 않을 수 없었다. 예불을 마치고 날이 밝자 입승스님으로부터 치문반 전체 도량석 습의를 시키라는 불호령이 떨어졌다. 찰중스님을 통해 지시 받은 습의장 스님이 치문반 지대방 문을 두드리고 “오전 7시까지 수석정에 치문반 전원 집합하세요!” 라고 지시사항을 전달하자, 그렇지 않아도 그 일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웅성 웅성 지지고 볶고 말이 많던 때에 원망의 화살까지 날아들었다. 치문반장스님이 “10분전 착석시간입니다. 6시 50분까지 착석하십시오!”라며 재촉해서 수석정으로 올라가는 길은 참으로 추웠다. 모자는 썼지만 장갑을 끼지 않은 게 후회스러울 정도였다. 수석정으로 가는 도중에도 도반스님들의 따뜻한 탁마의 말씀은 끊이질 않았다.

“동안거 시작을 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참으로 걱정된다 걱정돼!”

“이래가지고 동안거 반장소임인들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당시 나는 동안거 반장으로 선출된 상황이었다) 반장소임 맡으면 법고도 못 칠 텐데 다른 거라도 잘하셔야죠!”

“가을산철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제 와서 도량석 습의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헌데도 참 이상하게 나한테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싱글벙글 웃으며 “공부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하고 대꾸해가면서 여전히 싱글벙글 웃기만 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수석정 호수에서 흘러내려온 계곡물 흐르는 소리는 참으로 신선하게 들렸다. 호수 입구에 다다라서 한 여름 비온 뒤 수량이 많을 때에는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멋진 풍경이었는데 수량이 줄어서 징검다리가 드러나고 그 사이로 졸졸 흐르는 모습은 메마른 징검다리 같다'는 생각이 들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내 징검다리를 막 건너려하자 수석정의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오면서 나를 반겨 함박미소를 지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럴 줄 알았다'도 아닌 듯 하고 '시원히 잘했다'는 뜻도 아닌 듯하면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묘한 느낌이었다. 나도 웃어 보였다. 징검다리를 건너서 법고 연습장에서 습의장 스님으로부터 도량석 습의를 받는 동안 몹시 추웠지만 그보다 도반스님들께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다음날 새벽에도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했는데 전날과 다를 바 없었다. 그리고 저녁 공사시간에 윗반 스님들로부터 호되게 야단맞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방학이 시작되었다. 이날 사시공양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서울로 출발하여 봉은사에 계신 은사스님께 인사드리고는 다음날 아침에 바로 광주로 내려가서 증심사에 계신 스님들께 인사드리고, 또 다음날 오전 일찍이 송광사로 출발했다. 전 사중을 놀라게 한 도량석 재능을 그대로 물어뜯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도반 수석정을 다시 찾기로 했다. 송광사에 들어온 다음날 아침 일찍 드디어 수석정에 올라갔다. 징검다리 앞에 다가가자 긴 팔로 감싸듯 안아주며 함박웃음을 지어주었다. 나는 징검다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그의 품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호수의 물이 참으로 맑아보였다. 노랑빨강초록 하늘빛에 흰 구름 등의 천지를 다 담았다. 법고 연습장을 지나 조금 높은 자리에 당당한 위엄을 품은 수석정에 올라섰다.

다시 한 번 주변을 빙 둘러보고는 “그래 네가 나를 기다렸더냐.” 하는 생각에 빙그레 웃음이 나왔다. 이미 비치되어 있는 연습용 목탁을 들고 연습을 했다. “정~구업 진언 수리 수리 마하수리...” 목이 터져라 연습을 했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2시간도 훨씬 넘었다. 공양시간이 가까워져서 그만 마치고 내려가기로 하였다. 정말 시원했다. 정말 후련했다. 그야말로 정말 통쾌했다. 조금 걸어 나오다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사시공양 끝나고 다시 오겠노라.”고,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定慧社

삭발하는 날

범혜梵慧 | 치문

송광사 강원은 옛날 전통방식을 고수하기로 유명하다.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삭발식이다. 나는 처음 그 삭발식 광경을 지켜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어릴 적인 1960년대 후반쯤 아버지께서 경대를 앞에 두시고는 비누거품을 잔뜩 문질러 바르시고 면도를 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도루코 외날 면도기를 지금에 와서 다시 보게 되었던 것이다.

요즘은 3중 면도날이니 터보면도기니 하며 좋은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오래된 면도기를 여태껏 사용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수각장에서 각자가 편하게 삭발하면 될 것이지 왜 큰방에서 엄숙하게 격식은 갖추어서 하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럴만한 사정도 있는 것 같다. 매월 보름날과 그믐날이 되면 포살과 범문이 있는데 그 하루 전날 삭발식을 한다. 이렇게 15일 주기로 삭발을 하니 까 머리카락이 많이 자라나서 요즘 나오는 면도기로는 삭발이 되지 않는다.

또한 삭발식을 하고 나면 저녁 예불시 백팔대참회를 하고 이어서 보조국사 스님의 정혜결사 정신을 계승하여 신 정혜결사 결의문을 낭독한다. 이러한 일련의 행사들과 연계하여 삭발식을 하다 보니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방식을 고스란히 계승해 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하안거 결제가 시작되고 삭발하는 날 한 스님이 내게 평생토록 잊지 못할 크나큰 감동을 안겨 주신 일이 있다. 그 분은 사집반 스님으로 당시 습의장 소임을 맡고 계셨다. 습의장 소임은 강원에 처음 입방한 치문반 스님들이 대중생활에 적응하고 각자의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습의와 경책을 전담하신다. 물론 삭발식도 습의장 스님의 진두지휘로 진행된다.

이날은 그간 치문반 스님들 간에 서로 삭발을 해주며 익힌 삭발습의를 어느 정도 마치고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강원의 최상급반인 대교반 스님들을 비롯해서 강원의 전 스님들의 머리를 삭발하는 날이다.

삭발솜씨가 우수한 10명의 스님이 우선 선발되어 삭발대 앞에 앉았다. 모두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눈빛엔 비장함마저 서려있다. 외날 면도기는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자칫하면 머리에 상처를 내서 피가 나기 일쑤다. 더군다나 최하급반인 치문반 스님

들이 상급반 스님들의 머리를 그것도 처음으로 삭발한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사그룩 사그룩~ 드디어 엄숙한 적막을 열어젖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면도날에 머리카락이 잘려져 내리며 일제히 삭발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어느 한 스님도 실수가 없었으며 그 손놀림은 물 흐르듯 부드러워 보였다.

어느덧 상급반 스님들의 삭발이 끝나고 하급반 스님들로 내려오면서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스님들도 하나 둘 교대로 투입되며 순조로이 삭발식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나는 지병으로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은데다 눈마저 나빠져 시력이 떨어지며 상이 두 개로 보여 간경하기도 힘든 최악의 몸 상태였기 때문에 도반들이 삭발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주변 뒷정리나 하고 있었다. 물론 습의장 스님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셨다. 그런데 느닷없이 치문반장 스님으로부터 전갈이 왔다. 습의장 스님께서 내게 당신의 머리를 삭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나는 너무나 의아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습의장 스님께서 머리에 비누칠을 하시고는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나는 습의장 스님께 다가가며 생각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지시를 불이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전에 도반스님 머리를 한번 삭발하다가 여러 곳에 상처를 내어 습의장 스님께 질타를 받은 적도 있고, 그 이후로는 눈이 나빠져 삭발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당신의 머리를 삭발하라고 하니 이해하기도 어렵고 참으로 난감했다.

그런데 습의장 스님의 말씀이 “범혜스님 다 안 해도 좋으니 할 수 있는데 까지 해 보세요.”라고 하셨다.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뇌리 속엔 강재구 소령의 살신성인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혼자만 열외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안쓰러웠든지 아니면 습의장 스님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 명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려운 결단을 하신 것이었다. 빈말이라도 도반스님들께 내가 삭발을 해주겠다고 하면 모두 손사래를 치며 도망가는 판국인데 습의장 스님께서 머리에 상처가 나서 영망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랫반 스님인 내게 기꺼이 당신의 머리를 맡기신 것이다.

나는 자신은 없었지만 용기를 내어 삭발면도기를 들었다. 어떻게 머리에 대야할지 몰라 망설이니 옆에서 누군가가 손목감각으로 하라고 했다. 하지만 손목감각을 익히지 않은 터라 대충 들이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면도날을 머리에 대고 살살 당기니 머리가 잘리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더 날을 세워서 힘을 주고 당기니 머리가 잘려져 나갔다. 그렇게 해서 앞가르마를 타고 이제는 옆면 경사를 따라서 쭈~욱 쭈~욱 당겨 내렸다. 바로 그 순간 습의장 스님의 입에서 아~악 아~악 하는 얇은 비명소리와 동시에 머리에서는 피가 솟구쳐 올랐다. 결국은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그것도 두 군데나.

이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하자니 머리를 상하게 할까 두렵고 그냥 손을 놓자니

습의장 스님의 그 고결한 뜻은 저버리게 되는 것이다. 화장지로 지혈을 하며 생각했다. 그래 다시 한 번 해보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보자.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 습의장 스님의 성의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보자는 생각이 들어 다시 면도기를 잡았다. 그리고는 더 이상의 상처를 내지 않고 삭발을 마쳤다.

습의장 스님께 너무 죄스러운 생각이 들어 합장하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사죄했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그게 습의사항 멘트입니까.”라고 말씀하시며 습의장 스님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으셨다. 나는 습의사항대로 다시 합장하며 “삭발 마치겠습니다.”라고 했고 이어 서로가 “성불하십시오.”라고 끝을 맺었으나 한참동안을 일어서지 못하고 그대로 꿇어 앉아 있었다. 습의장 스님도 무릎이 안 좋은데다가 남들보다 3배나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다리에 마비가 온 것이다.

사시 때 습의장 스님과 마주치게 되어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를 했더니 “괜찮습니다. 머리만 나면 됩니다.”라고 하시며 특유의 미소를 지어 주시었다. 그리고 나니 다소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온 몸 바쳐 소임 다 하신 스님의 모습 평생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定慧社**



詩가 있는 풍경

스님 뵈던 날

서공西空 | 치문

첫 번째 인사드리던 날
실낱 같이 뛰는 가슴은
온화하고 여여한 미소에 감흥되어 눈 녹듯 사라지고

두 번째 인사드리던 날
마니 수한 초로운 몸은
따뜻한 차 한잔에 흥조빛 붉은 뺨이 되어 스며들었네.

세 번째 인사드리던 날
놓았던 마음 한 구석
귓가를 울리는 천둥소리로 다시금 추스리게 하셨고

네 번째 인사드리던 날
마음도 정신도 붙잡고 있었지만
스님은 평범한 거사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네.

인사드릴 날
놓고 놓아 맑음도 탁함도 분별하지 않는다면
스님과의 만남도, 대화도
조계산에 불어오는 겨울바람 스치듯
이생에 있음도 없음도 기다리지 않으렵니다.

靑山

상국床國 | 사교

靑山也 靑山也 靑山也
나의 마음을 알아주겠니
검은 눈동자로 너의 모습을 보고
맑은 너의 소리를 듣고
숲 속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달콤한 향기를 맡고
알 수 없는 미묘한 참 맛을 알게 하고
온 몸으로 전해져 오는 자연의 살결을 느낀다.
이 모든 시절인연들이 마음으로 전해져 올 때
슬프고도 괴로운 나의 일상들은 저 편으로 멀리
언제나 행복이 나의 곁에 머물기를...

사람아 사람아 사람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아
기쁨이 슬픔이고 슬픔이 기쁨이거늘
길 잃은 아이처럼
어디로 그렇게 찾아서 헤매이느냐.
네가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아무런 상관없이
맑고도 밝은 저 달은
항상 우리들 곁에 머물고 있느니라.

쉬어 가는 마당

어느덧 여기쯤 집이라 부르게 됐다. 그리 어색하지 않다. 우리의 집은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아니한다. 차분한 그래서 약간 쓸쓸한 수행도량 송광사에서 이곳이 영원한 안식처, 방계이도록 오늘도 스님들은 정진중이다. 때로는 나태와 신경질, 욕심과 멍함으로 온 이유도 있는 채 살아가지만 자신의 모습을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서 살펴주는 도반, 부처님 말씀, 두통도 사라지게 하는 저녁예불로 도량도 마음도량도 조금씩 아름다워져간다.

자체가 쉬운 듯 어려운 수행인 대중생활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애증이 교차하고 미묘한 심경전에 자신의 교만과 분노에 스스로 놀라기도 하지만 대중이란 어미라 품에서 점점 부화해가는 자신에 대한함을 느끼기도 한다.

어긋하려 하시리라 했던 부처님 뜻은 거스르지 않는 지금도 매우 유효하여 사 람들 사이에 가장 자주 오가는 말이 되었다. 하긴 하시어는 안락이 어디 있으랴. 각자의 기쁨들의 표현이므로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던 인간에 어느덧 성경이 내려 않는다.

승속의 구분이 없다지만 같은 목적을 가진 동업중생들이 모여기에 정진에 힘이 붙는다. 이상하게 보였던 모습들은 구도의 열기가 되고 청정계율은 승은 공로자가 되고 단원들은 신심을 내어 공경하며 시주를 올린다. 러할 나위 없는 조건은 진실 지를 향하여 언제나 정진하려 항상 감사하라고 생각한다. 새벽을 끝내고 거울로 보는 자신의 모습에서 고요한 기쁨을 느끼고 독경소리는 그대로가 새로운 시공이 되고 종소리는 미묘한 파장으로 이 몸을 투과하여 사대육신에 실다운이 없음을 전 한다.

집에 와 보니 나와 똑같은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고 나는 오히려 기짜가 되어 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손투만한 바람과 소망들이 있지 않은 현실을 만들어 내고 그 곳에서 주인의식과 스타일을 점점 키워나가고 필요한 것은 점점 많아지고 점점 겁잡하고 따끔해진다. 그러나 진짜는 아프지 않다. 속상하지 않다. 진짜에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의미 없음이 허무나 한기함, 내버려둬야 된다면 이미 허무나 한기함, 내버려둬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 부처님께서 증도의 길을 가라 강조하신 뜻을 잘 새겨 시행 착오 없는 아늑다라사만사보리를 부리 이루기를. **定慧社**

중국 수隨나라의 불교

연관蓮觀 | 사교

중국 불교는 이제 전란의 시대이던 5호 16국을 통하여 오히려 정착의 기반을 다지고 남북조 시대에는 저층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유행하여 본격적인 번성기에 들어가서 특히 황제 보살이라는 양의 무제에 의해 전통 민족 종교인 도교에 우위를 확고하게 다지게 되나, 역시 호사다마好事多魔라. 이로 인하여 도교세력의 음모와 교단의 부패, 북위 태무제와 북주 무제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가혹한 탄압을 받고 특히 무제의 폐불閉佛은 거의 파멸지경까지 불러 왔으나, 무제의 죽음과 함께 여러 사람들 특히 당시 재상이던 양견楊堅(수의 문제)의 노력으로 다시 부흥의 길로 들어서며 오랫동안의 중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시대였던 혼란기를 정리하고 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수나라의 국가 불교로 새 시대를 맞이한다. 이제 정착 단계를 지나고 흑독한 시련기를 거치면서 성숙되고 훨씬 중국화된 수나라의 불교를 살펴보자.

1. 국가 불교

중국 사회에 불교가 흥통됨에 있어서 중국인의 사상이나 신앙 윤리적 문제를 계기로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다. 수의 고조高祖 문제文帝는 북주 무제의 폐불 뒤로 정제의 선을 이어 받아서(581) 즉위하고 진陳을 병합 천하 통일의 대업을 이룩하였다. 수는 건국 전후 13년 동안에 호족 왕조인 북

제北齊·북주北周와 한족 왕조인 양場·진陳 4왕조를 멸망 시켰으며 이때 유신들의 처우문제라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漢·胡 양민족의 반목을 해소하고 통일국가의 기구를 확립하기 위해 정신적인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의 지도 이념으로써 일체의 차별관을 초월한 무차별, 절대평등의 불교사상에 입각한 정치가 필요했다. 먼저 북주의 폐불을 계기로 하여 수나라에 있어서 불교 부흥의 일대 시동은 종래의 인도불교를 초극하는 새로운 전개를 의미하게 되었다. 남북 불교의 통합을 시발로 하여 중국인을 위한 새로운 요소가 가미된 중국적인 사상·감정에 적응한 새 종파의 설립을 수나라 불교의 역사적 의의로 본다. 북주의 폐불을 경험하지 않고는 중국 신불교의 기반은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통일 국가의 패업을 달성한 문제도 일단 전통 사상인 유교의 덕치주의를 이상으로 하여 예교禮敎의 실천을 통해서 강력한 문교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한·호의 대립이 없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덕치주의에만 의존하기가 어려웠고, 유교에 대해 깊은 이해도 없었으며, 오직 한족의 군주로서 형식적으로만 유교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을 뿐 만년에 가서는 불교 신앙에 대한 열의가 높아짐에 따라 유교에 냉담한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드디어 인수 원년(601)에 전국의 공립학교를 폐지하는 조칙을 발표하고, 그날 천하의

諸州 111개소에 불사리를 반송하고 사리탑을 건립 시켰다. 이것은 불교사상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문제의 이 같은 신앙의 실천은 인수년 간 3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때에 수도에서 사리를 봉지하여 각지로 파견된 자는 학덕을 겸비하고 선도宣導를 감당할 수 있는 제1급의 고승들이었으며, 사리입합의 날에는 그 지방의 관리는 모조리 참가하여 7일간이나 정무를 정지하고 행도설재行都設齋 할 것을 명하고 있다. 이 사리탑 건립의 칙서에 의하면 문제가 천하의 인민들과 더불어 보리심을 발휘하여 복업을 닦으려는 뜻에서 꾀한 것이며, 건립의 비용도 국고에 의지하지 않고 모두 국민의 보시에 의하도록 하였고, 그 금액도 10文 이하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불교 정신의 보급과 그 철저를 기한 원심을 엿볼 수 있다. 그와 함께 수조의 불교가 천하의 넓은 지역에 걸쳐 중국인의 종교로서 발전해가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오중五衆과 사방관四方館

당시의 불교계에서는 학덕이 뛰어난 자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 수많은 학도들이 운집하였으며 각지의 大寺에는 그 사람들을 이끄는 우두머리가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즉 「중衆」의 성립이다. 문제는 칙명으로 25衆을 설치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5衆이 설정되었다. 이것은 중국에 있어서 공적인 종교별 단체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속고승전續高僧傳』 15권에 따르면 ‘그 衆은 모두가 삼학에 통한 자들로써 매일 등전登展하여 중경衆經을 독송讀誦하고 강講했다’ 고 되어 있으며, 경사를 중심으로 하여 널리 지방에까지 교화의 손을 뻗었다. 이들의 전문적 지식도 남북조 이래의 학풍의 연장이라 볼 수 있으며, 천태지의天台智顛나 삼계교三階敎의 신행

信行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립한 교학과 실천은 아직 미약하고 기성교단이 보다 유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이 5중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경론의 분과적 연구 태도가 서서히 표면화 되어 사상적 대립도 격화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25중은 불교 전반에 통한 지도자들이고 5중은 諸경론의 전문적 지식의 대표자라 볼 수 있으며 5중이란 ①대론중大論衆 : 법언보습法彦寶襲, ②강론중講論衆: 지은智隱, ③강율중講律重 : 홍준洪遵 ④열반중涅槃衆 : 동진童眞, 법총法總, 선귀善貴 ⑤십지중十地衆 : 혜천慧遷 등이다. 『고승전高僧傳』에는 이외에도 화엄중華嚴衆, 선중禪衆, 두타중頭陀衆의 이름도 보이고 있어 당시 여러 가지 衆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일본은 성덕태자가 추고천황推古天皇의 섭정이 되어 유불 정신을 가지고 내정의 정책이나 견수사의 파견 등에 의해 외국 문화의 호흡에 힘을 쏟고 있었다. 양제 때에는 낙양의 흥려사, 사방관에 외국 유학생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도량을 설치하였다. 이밖에도 사방관에서 『금강명경金剛明經』, 『인왕경仁王經』 등 소위 호국경전의 강연회가 성대히 개최되었으며 불전도 간행했다고 한다.

3. 천태종天台宗

강남에서는 일찍이 열반학파, 성실학파가 번창하였고 북지에서는 지론智論(화엄)학파가 대두했으나 이들보다 한걸음 앞서 『법화경法華經』을 가지고 종을 개창한 것은 천태지자대사(智顛538~597)이다. 그는 일찍이 양대 때 『법화의소法華義疏』를 저술하여 천태교학의 성립에 기여한 바가 컸던 성실학자인 법운法雲을 종의 상승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북제의 혜문惠文선사·남악의 혜사慧思선사를 사승

師僧으로 모셨다. 이것은 그의 사상이 교학에 편향한 남조불교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실천 불교를 전개하는데 있음을 의미한다. 즉 그는 당시 남 3북 7이라는 교상관석敎相判釋을 종합한 결과 독자적인 5시8교판을 창시 『法華經』을 최고의 경전이라 주장하였다. 그의 교판은 불교 철리의 최고로써 화엄法藏의 5교10종판과 더불어 중국 불교학의 쌍벽이 되었다. 지의는 양의 대동 4년(538)에 출생하고 양말의 난세에 출가하여 혜사에게서 법화삼매를 증득, 師의 권고에 따라 30세에 남으로 돌아왔으며 32세에 금릉 와관사瓦官寺에서 주석하면서 『法華經』을 講하였다. 후세에 이르러 이 해를 천태개종의 기원으로 하였다. 이렇게 조야朝野의 존경을 받기를 8년 후 절강 대주부臺州府에서 오대산을 들어가 두타를 행하였다. 그를 천태대사라 부르고 그 종지를 천태종이라 부르는 것은 이에 연유한다. 그 후 진주陳主의 칙서를 받고 다시 금릉으로 나와 광택사에서 『법화문귀法華文貴』를 강하였는데, 그 후 수가 천하통일을 하여 진광왕晉廣王(뒤의 양제)이 양주총관이 되면서 그에게 보살계를 주고 지자대사라는 호를 내렸다. 그 후에 고향인 형주에 옥천사를 창건하고 여기서 천태교의의 근간이 되는 『법화현의法華玄義』 및 그 실천방법을 설하는 『마하지관摩訶止觀』을 강하다가 60세(597)를 일기로 천태산에서 입적하였다. 그의 저서는 위의 천태삼대부 외에 『관음현의觀音玄義』·『관음의소觀音義疏』·『금광명현의金光明玄義』·『금광명문구金光明文句』·『관무량수경소觀無量壽經疏』(천태오소부) 등등 대단히 많으나 그 대부분이 문인인 장안대사章安大師 관정灌頂(561~632)이 늘 그의 스승을 모시고 필록筆錄한 것이다. 그의 공적은 그의 스승 지의와 함께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천태종의 기초를 확

립하였다. 후에 천태교한 연총淵叢의 땅이라 일컬어진 국청사는 양제가 지의를 위해 건립케 한 것으로 제 1대 좌주는 관정이었다. 천태종은 관정灌頂(561-632) 이후 당대에 이르러서 지위智威, 혜위慧威, 현량玄朗으로 이어져 명맥을 유지했으나 당시에 융흥한 선종 등의 위세에 눌려 중세를 드날리지 못하다가 담연湛然의 출세로 다시 융성하였다. 그는 천태종의 6조이며, 화엄의 징관澄觀과 함께 중당中唐 이후 명성을 떨쳤다. 만년에는 화엄의 징관과 대립함과 동시에 그 영향도 받은 탓으로 그의 사상은 천태의 교학을 조술할 때와는 달리 화엄사상을 가미하여 별개의 것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담연湛然의 뒤를 이은 도수道邃·행만行滿 2師는 함께 일본 천태종을 개창한 전교대사 최징最澄의 스승이기도 하다.

4. 삼론종三論宗

용수의 『중론中論』, 『십이문론十二門論』, 제바의 『백론百論』 즉 삼론의 연구는 양의 승랑僧朗에 의해 발전되었다. 그는 승전僧詮, 법랑法朗과 함께 손을 잡고 종래 성행하던 성실학파의 『이체합명중도二諦合明中道』의 사상을 배격하고 이것을 내세웠는데, 그 대성자는 수대의 가상대사 길장吉藏이다. 그의 저술로는 『삼론현의三論玄義』·『중론소中論疏』·『백론소百論疏』·『십이문론소十二門論疏』를 비롯 화엄華嚴, 대품大品, 법화法華, 무량수無量壽, 열반涅槃 등의 주석서 20여 부가 있고 8부중도中道の 도리를 선양하였다. 그의 몰후에도 삼론종은 장안에서 성행하였으나 현장이 가져온 유식계 논서의 전역과 연구가 성행함에 따라 쇠퇴하였다. 그러나 일본에는 길장문하의 고려인 혜관慧灌에 의해 전해져 남부 6종의 하나가 되었다.

5. 말법사상末法思想

진 혜사의 『입서원문立誓願文』 그리고 북위의 담만으로부터 수의 도작道綽을 거쳐 당의 선도善道에 의해 대성된 미타정토의 신앙은 모두가 말법사상에 근거한 것인데 그것이 다시 수대에는 신행信行에 의해 개창된 삼계교三階敎와 방산석경房山石經의 유적이 있다.

6. 삼계교三階敎

신행信行(540~594)은 처음에 상주相州의 법장사에 있으면서 삼계교를 창시하였다. 그는 말법의 중생은 최악의 범부라 하여 마음속 깊이 있는 악을 인정하고, 실유불성實有佛性이라면 일체의 선행善行에 취사取捨·비판批判을 가하지 말고 모든 것을 널리 불행佛行으로 행해감으로써 무시이래無始以來의 죄장은 소멸된다고 설하면서, 그 자신이 계를 버리고 노역에 종사하면서 상주 광엄사에 보시행으로 무진장원無盡藏院에 의한 수행의 제도를 세웠다. 그는 일체 불교를 제 1계인 일승불법一乘佛法, 제 2계인 삼승불법三乘佛法, 제 3계인 보법불법普法佛法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시時は 말법末法, 처處는 예토穢土, 인人是 파계파견破戒破堅이라 하여 수대 이후 지금까지는 제 3계인 보법불법에 의해서만 구제될 수 있다 설하였다. 그리고 무진장원無盡藏院이라는 독특한 경제시설을 설치하고 아무리 아미타 일불을 믿고 법화 일경을 독송하더라도 말법에는 구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또 말법시대에는 정법치화正法治化의 왕자도 정법주자正法住者의 승보僧寶도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은근히 제왕을 비난한 것이며 불교 각파를 배척한 것이라 하여 금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열성적인 신도들은 수·

당 사이의 5회에 걸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성황이 당대唐代에까지 미쳤다.

7. 방산석경房山石經

여러 곳에 석경들이 존재하나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하북성 방산현(북경서남)의 서부의 석경산(원명 백대산白帶山)의 대장경 각석이다. 산하에 수의 정원靜琬의 개창에 의한 운거시雲居寺가 있는데, 이 방산석경도 그가 말세가 되면 불경이 폐멸될 것을 우려하여 수의 대업 연간(605~617)부터 당의 정관 13년(639)에 천화遷化하기까지 석실칠실石室七室의 4벽 및 비에 경문을 새겨오다가 이것을 봉장해 두었다. 그리고 그 후 당의 예종睿宗의 9년인 금선공주의 주청에 의한 지원을 얻어, 그 사업은 진척되고 그것이 요遼·금金·원元의 약 750년에 걸쳐서 계속된 대사업으로서 석실은 현재 9실이 있다. 보산寶山에도 석굴과 석경이 있다. 이것은 북제부터 수에 걸친 명승名僧 영유靈裕의 발원에 의한 것이다. 그는 몸으로 북주 무제의 폐불을 경험했기 때문에 법보구주法寶久住를 바라면서 이 글을 열었다. 이러한 말법 당래의 의식과 불법구주의 정신은 당시 계속되는 폐불 특히 북주 무제의 폐불의 비참함을 몸으로 느낀 불교도들의 간절한 비원이었다.

- 結 -

1. 북주北周 무제武帝의 폐불로 거의 멸절 위기까지 갔다가 수隨의 고조高祖 문제文帝와의 인연으로 다시 소생하기까지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하고 그 비참함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시대를 맞아 불법구주佛法久住의 간절한 비원을 750년에 걸친 대사업으로 거대한 석경을 탄생시키는 등 중국 불교

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들이 다시 한 번 머리를 만져보게 하고 자리를 돌아보게 한다.

2. 수대의 불교 부흥은 문제와의 개인적인 깊은 인연으로 인한 영향도 있겠지만 한·호 양민족의 반목대립을 해소하고 수의 중앙 관계에 잠재하던 다원적인 여러 세력들의 마찰을 완화하고 통일 국가의 정신적 기반으로서는 혹은 지도 이념으로서 일체의 차별관을 초월한 절대평등의 사상이 불교의 기본 바탕이었던 것이 보다 더 큰 원인이었던 것 같다.

3. 이 시대를 계기로 불교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북주의 폐불을 계기로 하여 수나라에 있어서의 불교 부흥은 종래의 인도불교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개를 의미한다. 남북 불교의 통합을 시발로 하여 인도불교를 탈피하여 중국인을 위한 불교로서 새로운 요소가 가미된 중국적인 사상 감정에 적응한, 새 종파의 성립을 보았다는 데에 수나라 불교의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북주의

폐불을 경험하지 않고는 중국 선불교의 성립기반은 육성되지 않았을 것이라 한다.

4. 수나라 문제에 의한 불교 부흥은 거의 양무제에 비견될 만한 파격적인 요소들이 많았던 것 같다. 특히 공립학교를 폐지하는 조칙을 발포하고 천하의 諸州 111개소에 불사리를 반송하고 사리탑을 건립시킨 것은 중국 불교사상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5. 수나라의 불교는 학파 불교의 성격을 원용하여 오중五衆을 설정하였고 이는 서서히 종파를 형성하는 동기가 되었으며 지의智顓에 의한 천태종이 개창되었다. 그는 교학불교 편향을 지양止揚하고 선사들을 사승으로 모셨으며 그 소의 경전인 『法華經』의 〈보문품〉에 의한 관음신앙은 해동 불교신앙의 근간이 되었으며 수나라 불교의 최대 혜택을 받았고 최고의 성과이다.

6. 이 밖에 승랑에 의해 삼론종이 창조되었고, 말법사상으로서 삼계교의 흥융과 방산석경의 개착이 이루어졌다. 定慧社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편집실



10월 1일 강주스님 이취임식

지난 6년간 함께 했던 현진스님께서 떠나고 강사스님이셨던 일귀스님께서 새로 강주스님으로 취임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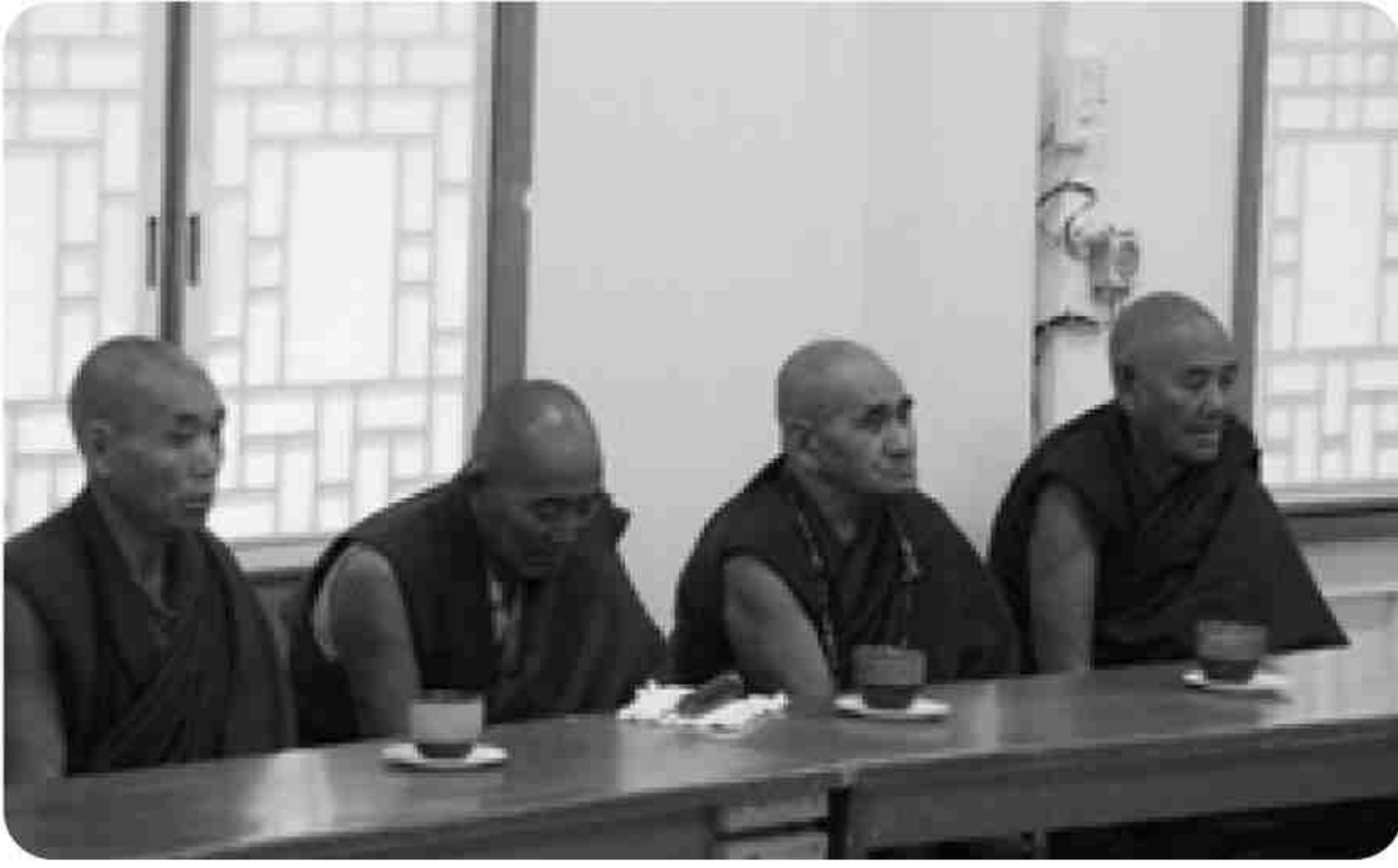
10월 12일 효봉스님 재

효봉스님 재를 모셨습니다. 치열했던 스님의 정진은 언제나 후학들의 본보기가 됩니다.



10월 25일 ~ 26일 전국강원연합 학인대회

경주에서 학인대회가 있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즐겁게 응원하고 화합하는 자리였습니다. 올해의 법고경연도 송광사에서 1등을 했습니다.



11월 4일 티벳 특강

청전스님과 함께 여섯 분의 티벳 스님들과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맑은 미소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한국 잘 둘러보시고 무사히 돌아가십시오.



11월 25일 보림사 현광스님 대비식

큰 원력으로 장흥 보림사를 중창 복원해오신 청원당 현광스님께서 11월 23일 오전 법랍 47세 세수 72세로 열반하셨습니다.



12월 6일 김장배추 운력

해마다 김장하는 날은 왜 항상 추울까요. 올해도 절집 대표 운력인 김장을 잘 해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2월 21일 동지새알 운력

사중의 전대중이 큰방에 모였습니다. 동지를 앞두고 오순도순 이야기도 나누며 새알을 빚었습니다.

12월 22일 구산스님 추모재

금일 아침도 정혜사 큰방에서는 구산스님의 칠바라미를 읽습니다. 대중생활을 몸소 실천하셨던 스님의 발자취를 기립니다.



12월 29일 여수 석천사 진옥스님 특강

사자루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특강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수행과 복지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셨습니다.



1월 14일 반결제 원족산행

전북 고창 선운산으로 원족산행을 다녀왔습니다. 도솔암의 마애불을 친견하고 고즈넉한 선운사를 둘러 내려오는 길이 한없이 여유로웠습니다.



1월 10일 ~ 14일 대교반 졸업여행

졸업을 앞두고 대교반 스님들 열네 분은 다 같이 적멸보궁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4년간의 강원생활이 앞으로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되기를 믿어 봅니다.



